

Love to learn,
 Love to think,
 Love thy God!

2012년 신입생
 현재모집

서울 국제크리스천아카데미(SICA)는

기독교적 고전교육(Classical and Christ-centered Education)을
 지향하는 국제학교입니다.



2012학년도 신입생 수시 및 정시 입학

Senior Kindergarten(유치원생)/Grammar level(초등학생 1-4학년)

.....▶ 양재시민의숲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거리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63번지



SICA
 서울국제크리스천아카데미
 Seoul International Christian Academy

☎ 557.7710
 sicacademy@dcty.co.kr
 www.sicacademy.org

부부간의 사랑



☞ 손봉호(대표주간)

유교에서는 가정의 핵을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둔다. 유교 윤리의 기본으로 알려진 삼강(三綱)에서는 부자유친(父子有親)이 부부유별(夫婦有別)보다 먼저고 삼강(三綱)에서도 부위자강(父爲子綱)이 부위부강(夫爲婦綱)에 앞선다. 그러나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우선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르다 (창 2:24, 마 19:5). 그런데 부모와 자식은 혈연관계에 있기 때문에 본능적이고 자연적이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는 같은 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맺어져 있다. 이는 기독교가 자연종교가 아니라 언약의 종교란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인도 신화에서 가르치듯 신이 인간을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다.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은 철저히 신실하셔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변하게 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는다. 물론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여야 한다. 부부간의 약속도 마찬가지다. 결혼식 때 신랑과 신부는 기쁨 떠나 슬플 때나 언제, 어디서나 서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며 유일한 아내로 자신의 몸처럼 아끼고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한다. 그런데 그 약속에 신실할 때 부부는 서로 믿을 수 있고 가정은 안전하고 안정되어서 참 평화와 행복이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부간의 사랑에는 약속에 대한 신실함이 그 핵을 이룬다. 일생 부부가 연애할 때처럼 서로 좋아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어쩔 줄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면 참 좋겠지만 그런 것은 소설이나 영화에만 존재한다. 너무나 많은 젊은 부부가 그런 애송이 사랑이 사랑의 전부인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사라지면 사랑이 식었다고 판단하여 이혼한다.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란 말도 그런 송아지 사랑(calf love)을 참사랑과 혼동한 데서 생겨나는 오해다. 그러

나 그런 감정적인 사랑은 젊은 남녀가 다른 이성에 관해서 관심을 두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어주신 하나의 씨앗에 불과하다. 끝림이 있어야 서로에 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서로 더 알아보려 하게 된다. 만약 그런 감정이 없다면 아무도 이성에 관해서 관심을 쓰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결혼하는 사람이 적어 인류의 존속이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감정은 사랑의 전부가 아니고 사랑의 핵심도 아니다. 사랑의 핵심은 서로 믿고 서로에게 철저히 신실한 것이다. 아무리 서로 사랑한다고 야단을 쳐도 서로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신실함이 결여되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감정적으로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사랑’할 수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있다.

감정적인 사랑은 참사랑의 시작은 될 수 있으나 결혼의 조건은 아니다. 나의 부모님 세대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경우가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렇다고 하여 그들의 결혼이 잘못되었다 할 수도 없고,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이 모두 불행하게 살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대 아니면 죽는 것이 낫다”고 야단을 치며 결혼한 요즘 젊은 것들이 더 많이 이혼한다. 성경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기는 하지만 사랑이 결혼의 조건이라고 가르치지는 않는다.

성경은 부부간에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명령한다. 성경이 사랑을 ‘명령’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그 사랑이 감정적인 것이 아니란 것을 보여준다. 감정은 명령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신학자 다드(C. H. Dodd)는 아가페를 “감정이나 애정(emotion or affection)”이 주가 아니고 “능동적인 의지의 결단(active determination of the will)”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부부간의 관계는 감정적인 사랑만으로 이뤄지지도 않고 이뤄져서도 안 된다. 쉽게 변하고 사라지는 감정에 근거한 관계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태에서는 삶의 안정도, 생산적인 활동도 기대할 수 없다. 부부간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깊어야 하고 더 성숙해야 한다. 합리성과 의지가 같이 작용해야 하고 감정이 그에 따라야 한다. 아가페 사랑에는 감정적인 애착이 동반할 수 있다.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딤후 5:8)고 경고한다. 이 경고는 우선하여 부부관계에 적용되어야 한다. 모든 아내는 남편을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남편으로, 모든 남편은 아내를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내로 인식하고 서로에게 철저히 신실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부부가 서로 돌보지 않는다면 이는 서로가 상대에 가지고 있고 마땅히 가져야 할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고, 그런 배신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것이다.

이혼은 약속을 배신한 결과다. 성경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을 간음에다 비유한 것은 우상숭배와 간음이 모두 배신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유한 것은 거기에는 모두 신실함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기독교 가정 부부들은 서로에게 철저히 신실함으로 스스로 행복할 뿐 아니라 지금 대대적으로 파괴되고 있는 한국의 가정들에 소금과 빛의 기능을 수행했으면 한다.



손봉호 본지 대표주간.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 박사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Contents

WORLDVIEW-SEPTEMBER-2012



WORLDVIEW

2012년 9월호 WORLDVIEW 통권 147호



표지인물
양은순

〈월드뷰〉는 우리사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소망하며 기독교학문연구에 뿌리를 두고 발행하는 기독교 세계관 전문잡지입니다. 일상 속 깊이 기독교세계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기독교세계관을 소개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COVER STORY

06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통로입니다_양은순

SPECIAL

- 12 부부란 무엇인가?_편집부
- 14 부부관계와 의사소통_김성묵
- 20 이혼(離婚)이 아닌 Re婚을 사는 십계_송길원
- 28 결혼은 불완전한 사람을 위하여_두상달

COLUMN

- 02 대표주자 칼럼 부부간의 사랑_손봉호
- 32 월드뷰가 만난 사람 과거로부터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반성하는 지혜를 배우다_추태화
- 36 대중문화 속 가족이야기 대중문화 속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선 두 가지_박진규
- 40 그림책이야기 딸의 결혼과 그림책_현은자
- 44 미술이야기 황영애, 영혼의 계절을 말하다_서성록

CULTURE

52 유머 올림픽 경기_손봉호

BOOK REVIEW

48 서령 카를 하임의 성경의 세계상_최태연

NEWS

53 월드뷰 뉴스



좌측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는 네이버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에서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한 실천을 진척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대표주자 손봉호
발행인 김성묵
편집인 김건주
편집위원 김승태, 김혜정, 신현기, 유경상,
장유진, 차명실
자문위원 유진희, 정중모, 이상정
사진 정일권
디자인 황정희
인쇄 완산정판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전화 02-754-8004
팩스 0303-0272-4967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2동 212-4
한강르네상스빌 A동 402호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페이스북 [facebook.com/cworldview](https://www.facebook.com/cworldview)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가정상담 사역의 대모(代母) 양은순 총장 인터뷰



대담 및 정리: 안석(서울기독교대학교 치유상담대학원 교수)

행복한 결혼생활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결코 노력 없이 저절로 행복하게
살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결혼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양은순 미국 풀러신학대학원 가정사역 전공으로 석사, Biola 대학교에서 박사(Ph.D.)를 취득했다. 가정사역 전문 훈련기관인 HOME의 설립자이며, '가정사역'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문 가정사역자 배출을 목표로 설립된 HIS University의 총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며, 《그리스도를 위해 자녀를 기르자》와 78권 이상의 역사와 《사랑과 행복의 초대》와 8권의 저서가 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 승인 결혼과 가정 심리치료사(MFT)이며, '영성심리치유' 및 놀이치료를 통한 부모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학교 총장님으로서의 행정업무, 상담전문가로서의 상담사역, 가정사역 순회교육으로 매우 분주하게 지내시리라 생각하는데, 시간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잠시 귀국하여 며칠 전부터 전주에서 가정사역에 대해 교육을 하고 있어요.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교육이지요. 교육을 할 때마다 저는 한국의 자녀 양육 실태에 아찔한 위기감을 느끼곤 해요. 하루 빨리 많은 부모와 상담자들에게 건강한 가정사역에 대해 올바르게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총장님을 가정사역의 대모(代母)라고 부르는데요, 총장님께서 가정사역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를 가정사역의 대모라 불러요? (웃음). 그렇다면, 아마도 1982년 초판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사랑과 행복에의 초대》때문 일거예요. 이 책은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책을 거듭하고 있어요. 또한 많은 가정사역 전문가들이 배출되었어요.



박사님께서 현재 HIS University 총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시잖아요. 게다가 대학교도 설립하셨고요. 대학설립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닐 텐데요, 가정사역을 위해 대학을 설립하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가정사역이라는 특화된 분야의 대학을 설립한 이유가 있습니까?

HIS대학은 가정사역 전문가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정식 학위를 수여함으로써, 더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전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되었어요.

2002년, 당시 미국에 체류 중이던 남편이 나무에서 떨어져 뇌를 다치는 큰 사고를 당했어요. 남편은 거의 치유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사고가 있었던 그 당시에 저는 HOME 사역과 함께 모 대학교의 상담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많이 다친 남편의 치료를 위해 저는 미국을 가게 되었지요. 그때 당시 한국에서 설립되어 운영되던 HOME은 전국에 지부를 설립하면서

HOME을 모체로 Home International School에서 앞글자를 취해 HIS University가 설립 되었던 것이죠. 남편의 치료를 위해 온 미국에서 HIS University를 설립과 남편의 치료와 함께 이루어졌으니, 그 감격이 남달라요.

서 많은 가족전문 상담자들을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상담사로 채용되기도 했어요. 저는 이들의 성과를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위의 필요성을 절감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지요. HOME을 모체로 Home International School에서 앞글자를 취해 HIS University가



설립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의 치료를 위해 온 미국에서 HIS University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통해 미국에서 남편의 치료와 대학 설립을 하게 하신 것이죠. 대학설립이 남편의 치료와 함께 이루어졌으니, 그 감격이 남달라요. 말씀 드린대로 남편의 사고와 치유과정은 HIS University의 설립과정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더욱 그래요. 남편의 사고와 치유의 과정은 제가 전인치유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과 공부를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총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대학 설립부터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HIS University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가요?

HIS University는 가정사역과 기독교가정상담 박사(Ph.D.)를 배출하는 세계 유일의 대학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가정 사역으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대학이라는 말은 단순한 박사학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전인치유를 경험하는 기독교상담 사역자를 길러낸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일에 HIS University가 귀히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위기에 처해 있어요. 위기 가정을 치유할 수 있는 전문 가정사역자들을 HIS University를 통해 양성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큰 비전이예요.

요즘은 익숙한 말이 되었습니까, ‘가정사역’이라는 말이 생소하던 시절이 있었죠? 총장님께서 특별히 가정사역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1976년도부터 가정사역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충현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라는 집회가 사흘 동안 있었는데, 세 명의 강사 중 두 명은 외국인였고, 거기에 제가 있었죠. 그때부터 가정사역은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축복 속에 1970년도에 결혼을 했었죠.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 행복한 결혼생활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는 전혀 달랐던 거죠. 결코 노력 없이 저절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부부싸움을 참 많이 했어요. 그때 저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결혼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기독교출판사에서 일하던 남편은 결혼과 가정사역에 관한 외국의 원서들을 가져와 세계 번역을 부탁했습니다. 그 책들을 번역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가정사역에 눈을 뜨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번역자로서, 강사로 초청받기 시작했어요. 매년 세미나 때 남편은 저를 적극 지지해 주었고, 남편의 지지 덕분에 결국 가정사역자로 활동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은 최초의 결혼이야기와 마지막 혼인 예식으로 끝을 맺고 있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정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중요한 주제를 가족관계를 통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 셈이지요. 이처럼 가정은 성경의 중요한 주제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저희가 가정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에 대해 올바르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크리스천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가정사역을 하고 계시는 총장님은 성경에 기초한 가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으로, 결혼 이야기로 시작해서 결혼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매 처음 책인 창세기에도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야기가 있지요. 당연히 주례자는 하나님이지요. 신약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최초의 결혼 이야기와 마지막 혼인 예식으로 끝을 맺고 있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정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관계를 모르면 성경을 깊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성경은 가족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성경의 중요한 주제를 가족관계를 통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 셈이지요. 이처럼 가정은 성경의 중요한 주제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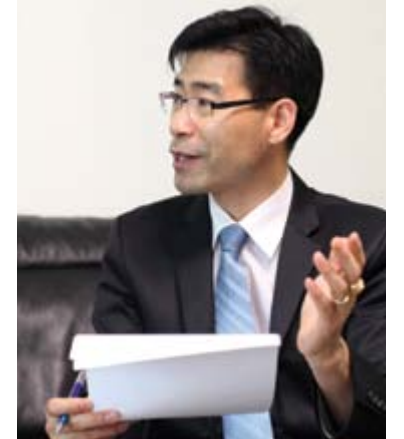




프랑스의 절실한 기독교 신앙인이자 아동소아과 의사이며, 정신분석가인 프랑스와즈 돌토(F. Dolto)역시 예수님의 행적을 이야기 하고 있는 공관복음을 가족관계 안에 해석하면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바가 있어요.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가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가정을 살펴보면 많은 위기를 발견할 수 있지요? 교회에서도, 가정사역자들도 가정의 위기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 가정은 그야말로 위기 가운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정들 역시 모두 완벽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한 만큼 가정의 행복은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또한 가정의 행복을 위해 노력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의 위기가 온다고 봅니다. 가정의 행복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인식이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완벽한 가정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신앙가운데 가정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가정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강사를 초대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가정이라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목회자들의 가정을 보더라도 위기를 느낍니다. 사모들이 우울증으로 많이 힘들어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적절하게 분출하며 해소해야 하는데, 안에서 끓아 터지게 된 셈이죠.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무엇보다 믿음의 가정부터 건강하게 세우는 일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바로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공감이 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동안 많은 가정 위기를 겪고 있는 내담자들을 상담하면서 가족관계로부터 많은 심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가정사역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가정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바람직할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가정사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위주의 가정사역은 적잖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보면, 부부학교를 한다고 합니다. 부부들에게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나 아내가 없는 가정일 경우에 부부학교 그 자체는 그들에게 소외감을 주고 상처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사역은 대상에 맞는 옷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프로그램보다 자연스러운 하나의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가정사역은 프로그램이 아닌, 가정 문화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문제 있는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 사역은 무엇보다, 그 어떤 사역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님이 함께 하신 가정은 천국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사역의 시작은 프로그램이 아닌, 성경에 기초한 가정에 대한 개념부터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안석 서울기독교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상담학교수. 치유상담대학원 주임교수 및 신학과 학과장.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국립대학교 Ph.D.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상담심리치료 수퍼바이저 및 상임위원, 한국상담전문대학원협의회 상담전문가, 한국목회상담협회 상담 수퍼바이저 및 운영위원, (사)한국군상담학회 군상담 수퍼바이저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2011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정신분석과 기독교상담)의 몇 권의 저역서가 있다.



Worldview Special

부부란 무엇인가?

이 글은 결코 과학적 연구나 분석의 과정을 통해 생산된 무게 있는(?) 글이 아님을 먼저 밝힙니다. 가장 규정하기 어렵다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보통의 부부에게서 일상의 수다처럼 청취한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가벼운(?) 글이라 해서 그 내용이 갖는 의미나 가치가 가볍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진짜 현실'을 그리고 그 현실을 사는 이들의 속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창(窓)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편집부**

두 가지 질문

'부부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와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두 가지 질문을 건넸습니다. 30~40대 연령층의 부부가 주요 대상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30~40대에 주목한 것은 아닙니다. 속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을 찾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온 결과입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리해 보니, '부부' 혹은 '부부의 관계'에 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부부는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서로 동등한 관계이며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30%)', '운명의 동반자(20%)', '둘이 협력하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 없는 게임동료(10%)', '특별한 친구(10%)'라는 대답이 주를 이루었고 '웬수지간'이란 대답도 있었습니다.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는 '사랑(30%)', '신뢰와 믿음(25%)', '배려(15%)', '존경(10%)', '이해(10%)'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기타 응답으로 '돈, 성(sex), 대화'가 나왔습니다.

동등과 사랑

'뻘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뻘한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동등한 관계'에 대한 욕구가 여전히 가장 많고, 사랑해서 결혼한 관계이지만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몰라서 때로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와 설득, 계몽을 통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기'라는 말로 험악한 분위기만 조성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무엇이 오늘을 사는 평범한 부부들이 현실의 문제를 깨고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인지에 관해 교회와 관련 전문가들이 더욱더 철저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찾아내야 합니다.

부부란?

인터넷 검색창에 '부부'란 단어를 넣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직접 실행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얻은 결과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결혼식 손님은 부모님 손님이고, 장례식 손님은 자녀의 손님이다. 장례식 손님은 대부분 고인보다 고인의 가족과 관계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보면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는 사람은 가족이요, 그중에 아내요 남편이다. 젊을 때 찍은 사진을 보면 대개 아내가 남편 곁에 다가서서 기대어 있다. 그런데 늙어서 찍은 사진을 보면 남편이 아내 쪽으로 몸을 기울여 있다. 젊을 때는 아내가 남편에 기대어 살고, 나이가 들면 남편이 아내의 도움을 받으며 생을 살아간다. 그래서 서로 여보, 당신이라고 부른다. 여보(如寶)라는 말은 '보배와 같다'는 말이고, 당신(堂身)은 '내 몸과 같다'는 말이다. 마누라는 '마주 보고 누워라'의 준말이고 여편네는 '옆에 있네'에서 왔다.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귀한 보배요, 끝까지 함께 하는 사람이다. 세월이 가면 어릴 적 친구도, 이웃도, 친척도 다 곁을 떠난다.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켜줄 사람, 아내요 남편이요, 자녀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며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다.”

당신에게 부부란 무엇입니까? 대답이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다른 일들을 모두 내려놓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소중한 것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현명함입니다.



부부관계와 의사소통

◎ 김성득 장로(사)두란노아버지학교운동본부

세 가지 혹은 한 가지 종류의 가정

‘난, 이젠 지쳤어요. 마치 벽하고 사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이야기 이외에는 서로 말하지 않고 지낸 지 꽤 오래되었어요. 그게 차라리 편해요.’ 50대 중반에 들어선 자매님께서 나에게 하소연한 이야기다. 대학에서 캠퍼스 커플로 만나 누구보다 열렬히 연애했고, 그래서 두 사람은 누구보다 행복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느끼며 결혼했다. 그러나 이제 결혼 30주년이 가까워져 오면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한다. 무엇이 문제일까?

결혼할 때는 다 행복을 꿈꾸며 결혼한다. 결혼할 때는 함께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환상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결혼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함께 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더구나 아니다. 얼마나 열렬히 연애했는가가 행복한 결혼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조이스 허기트는 그의 저서, ‘결혼과 사랑의 미학’에서 이 땅에는 세 가지 종류의 가정이 있다고 말한다. 갈등을 억누르고 사는 가정, 갈등을 회피하며 사는 가정, 갈등을 극복하며 사는 가정이다. 공통점은 갈등이다. 모든 가정에는 갈등이 있다. 갈등이 없는 부부는 없다.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갈등을 억누르며 살았다. 힘 있는 한 사람이 ‘시끄러워! 뭐 그렇게 말이 많아!’라고 소리치면 모두가 숨죽이고 살아야만 했다. 그곳에는 분노와 한, 한숨과 눈물 그리고 상처가 있었다. 현대의 가정은 갈등을 회피하며 사는 가정이 많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무관심과 회피 속에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산다. 그러다 종말에는 파정에 이르게 된다. 행복과는 거리가 먼 가정이다. 행복한 가정은 갈등을 극복하며 사는 가정이다. 부부는 갈등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행복해진다. 성장과 성숙에는 통증이 따르게 되어 있다.



행복한 부부의 특징

행복한 부부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먼저 서로가 가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헌신하고 있으며, 의사소통이 잘 되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며,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 많고, 함께 같은 비전을 향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

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부간에 관계가 좋고 의사소통이 잘 된다는 것이다. 관계가 깨어지면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관계는 더욱 악화 되어 간다.

부부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다.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먼저 관계를 회복해야만 한다. 어떻게 관계를 회복해야만 할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황금률이며, 부부관계의 황금률이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부관계가 건강해야 한다. 관계를 맺는 데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접근과 반응이다. 만일 부부관계가 흔들리거나 깨어졌다면 접근과 반응을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면 접근하는 태도를 바꾸든지, 반응하는 태도를 바꿔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적절하게 접근하고 적절하게 반응해야만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그래야 행복해진다. 그러나 많은 부부가 엉뚱하게 접근하고 반응하며, 또 과격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과민반응을 보여 관계가 어려워지고 삶이 무너진다. 문제는 바로 접근과 반응의 태도다. 에베소서 5장 33절은,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접근하거나 반응할 때는 자기 몸을 돌보듯 그렇게 사랑, 즉 염려와 배려와 관심을 두고 돌보라는 의미이며, 아내는 남편에게 접근하거나 반응할 때는 존경, 즉 인정과 칭찬과 존중하라는 것이다.

연애의 신비는 오래가지 않는다

참 신기한 것은 연애할 때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접근하고 반응한다. 남자들은 아내가 추워하면 알아서 옷도 벗어주고, 오 리 가자면 십 리도 가주고, 조금만 무거운 것을 들어도 다 들어다 주면서 섬세하게 배려하고 관심을 기울여 준다. 그러면 여자들은 “오빠가 최고야~ 오빠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라는 반응을 보여 준다. 그래서 서로 사랑에 빠져 들어간다. 이래서 콩깍지가 씌워진 상태에 빠져 들어간다. 그 단계에 들어가면 강박적으로 상대방을 좋아하게 된다. 말이 없는 남자는 말이 없어서 좋아 보이고, 재잘거리는 여자는 말을 잘해서 좋아 보이고, 심지어는 폭력적인 남자도 티프해서 좋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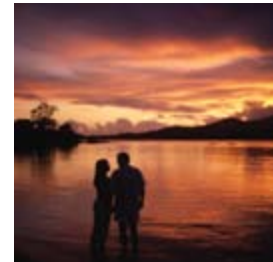
그런데 현대 의학은 이때 새로운 사랑의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그 호르몬에는 강력한 천연 마약 성분이 있다. 사실 그래서 분별력을 상실(?)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상한 소리도 한다. “난 너를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다.” “하늘에 있는 별이라도 따다 줄 게” 그러면 “난 오빠가 가자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오빠하고 함께 있으면 굶어도 좋아!”라는 소리도 한다. 그래서 결혼이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문제는 호르몬에 수명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개 3년 정도면 끝난다. 왜 하나님께서 호르몬을 3년 정도만 가게 하셨을까? 사랑은 감정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의지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강력한 명령어인 “MUST”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결혼한 후에는 서로 그렇게 접근하고 반응하지 않는다. 남편은 아내에게 옷을 벗어 주지 않는다. 얼마 전 TV에서 한 젊은 아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겨울 저녁에 남편과 외출을 했는데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 두꺼운 점퍼를 입고 앞서 가는 남편에게 “자기야, 춥다.”라고 했더니 “응, 정말 추운데.”라며 지퍼를 목까지 죽 올리면서 “야, 빨리 가자!”라며 발걸음을 서두르더라는 것이다. 연애할 때는 별을 따다 줄 수도 있다고 하던 남편이 결혼 후에는 물을 떠다 주기는커녕, 물 떠오라고 한다.



문제는 아내에게도 있다. 연애할 때는 그렇게 오빠가 최고라고 하던 아내가 결혼 후에는 계속 충고와 조언을 하기 시작한다. 사실 내가 결혼해서 당시 중학교 교사였던 아내한테 제일 많이 했던 말은, “내가 당신 학생이야? 왜 날 가르치려고 해!”라는 말이었다. “날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고 하면 아내는 “내가 아니면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해! 다 당신 잘못이라고 하는 이야기지.”라고 응수를 하였다.

아내에게 있어 충고와 조언은 남편을 돌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랑한다는 고백이다. 그러나 남편은 이 말이 지적, 무시, 비판 심지어는 비난으로 듣는 데 문제가 있다. 부부가 함께 차를 몰고 어디를 가다가 남편이 길을 잘 모르거나 길을 잃어버린 것 같으면 아내는 금방 눈치를 채고 남편에게 “여보, 길 좀 물어봐~”라고 한다. 그러나 이때 길을 물어보는 남편이 거의 없다. 여기저기 헤매고 다닌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아내가 길 좀 물어보라는 이야기는 ‘난 당신을 사랑해요!’라는 고백이다. 그러나 남편에게는 이것이 무시로 들린다. “당신은 평생 가야 이 길을 못 찾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길 좀 물어봐 이 바보야~”라고 들린다. 남편은 화가 나서 “뭐 내가 바보라고? 나도 찾아가 만나.”라며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닌다.



관계가 깨어지면 감정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면 관계가 악화한다. 관계가 악화하면 대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한 사람은 관계 회복을 위해 접근하고, 한 사람은 피한다. 대개 아내가 접근해 온다. “여보, 이야기 좀 해!” 그러나 남편은 피한다. 그럼 아내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남편에게 더 접근한다.

사랑으로 접근하고 반응하라

남편은 아내에게 접근하고 반응할 때, 염려와 배려와 관심을 두고 자상하게 접근하고 반응해 주어야 한다. 아내는 남편에게 접근하고 반응할 때, 인정과 칭찬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고 반응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두 사람의 관계가 친밀해진다.

수원에 사는 한 자매님이 외출해서 돌아오는 길에 사소한 다툼으로 마음이 상해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남편에게 어떻게 접근할까 고민하다가 내 강의 생각이 나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단숨에 후진으로 주차하는 남편에게 “여보 당신은 어떻게 후진으로 이렇게 주차를 잘해요? 당신 정말 최고야.”라고 접근을 했더니, 남편이 피식 웃더니, “난 후진으로 서울까지도 갈 수 있어~”라고 반응하더라. 그래서 관계가 바로 회복이 되었다.

중요한 이야기다. 관계가 깨어지면 감정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면 관계가 악화한다. 관계가 악화하면 대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한 사람은 관계 회복을 위해 접근하고, 한 사람은 피한다. 대개 아내가 접근해 온다. “여보, 이야기 좀 해!” 그러나 남편은 피한다. 그럼 아내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남편에게 더 접근한다.



이때 접근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나는 아직도 당신을 믿고 있어요.”, “난 당신을 존경하고 있어요.”, “당신은 나에게 꼭 필요한 존재예요.”라는 마음을 담아 접근해야만 남편은 안심하고 관계 속으로 나온다. 그러나 대개 아내들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남편은 피한다. 감정 처리에 서툴기도 하고,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참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피한다. 그러나 이런 태도도 잘못된 태도다. 아내가 접근하면 반응을 보여야 한다. 아내를 돌보는 마음으로 반응을 보여야 한다. 사실 아내가 접근해 온다는 것은 “아직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나는 당신한테 소중한 존재예요?”라는 의미다. 아내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은 마음으로 반응해야 한다.

상담을 요청해 온 자매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 “우리 남편은 말귀가 어두워요. 내가 말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나 남편들은 이렇게 응수를 한다. “난 도대체 우리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본 문제는 남편과 아내가 대화의 패턴이 다르다는 것이다. 남자는 대화를 문제 해결책으로 생각하고 아내는 공감을 원한다. 또 남자는 사실과 정보를 주고 확인하는 대화를 하고, 아내는 감정을 나누길 원한다. ‘남자는 마음속에 말을 담아 놓고, 여자는 말속에 마음을 숨겨 놓는다.’라는 말도 있다. 그래서 아내가, ‘여보, 이야기 좀 해요!’ 하면, 대뜸 하는 말이, ‘문제가 뭐야?’라고 다그친다. 대화는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늘 해결책을 내놓는다. 아내가 아프다고 하면 ‘약 먹어!’, ‘병원에 가봐!’라고 이야기한다. 또 직장 생활을 아내가 힘들다고 하면 남편은 ‘그만둬!’라고 이야기한다.

아내는 단지 공감, 즉 들어주고 감정을 나누고 싶은데, 남편은 해결책만 이야기해서 대화를 계속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내가 입을 다물면 남편들은 또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내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는 ‘답답하다.’ ‘속 터져서 못 살겠다.’이다. 그러나 남편들은 ‘곧치 아프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 내가 그렇게 해결책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왜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하는냐라는 것이다.

문제는 아내에게도 있다. 아내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해 온다. “여보 저기 예쁜 카페가 있는데?” 그럼 남편은 바로 사실을 확인해 준다. “그래 그 카페 괜찮아 보이는데.” 그리고 가던 길을 계속 간다. 사실 아내는 “저 카페에 들어가서 당신하고 커피 한잔했으면 좋겠다.”라는 감정이 있었지만,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아내가 “여보, 달이 참 밝죠?”라고 물으면 대부분 남편은 “오늘 보름이잖아!”라고 사실을 확인해 준다. 그럼 아내는 또 마음이 상한다. ‘누가 보름인 줄 모르나.’ 아내의 경우, 달이 밝아서 드라이브하고 싶을 수도 있고, 산책하고 싶을 수도 있다. 그런 감정이 숨어 있다. 그럼 그렇게 표현을 정확히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여보 달이 밝아서 아주 낭만적이네요. 난 당신하고 산책하고 싶어요~” 그래야 남편이 적절하게 반응을 할 수 있다. 서울 아내가 경상도 남편에게 “오빠 달이 밝지?” 그랬더니, 남편이 “와? 달이 니더러 뭐라 카드나?”라고 했다는 유머도 있다.

그러니 아내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말을 하고 남편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아내들이 조심해야 할 중에는 “헤어져!”, “그럼 이혼해”라는 말이다. 여기 엄청난 감정이 숨어 있지만, 남편은 그런 말을 들으면 자존심도 상하고 그걸 사실로 해석해서, “그래, 그럼 이혼하면 될 것 아니야!”라고 반응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다.

대화는 듣고 말하는 가운데 관계를 성장시키는 도구다. 이 도구를 잘 개발해야 한다. 대화는 훈련이다.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중하게 자신의 감정을 잘 이야기하고 들을 때는 상대방이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정중하게 들어주고 가능한 속마음을 읽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부간 대화의 규칙이 있어야 한다. 대화하다, 한쪽에서 ‘스톱!’ 혹은 ‘그만!’하고 외치면, 그때는 바로 중단하고 다음 약속을 하고, 일단 그 문제는 접어두어야 한다. 그리고 끝낼 때는 반드시 손잡고 기도한 후에 끝내는 것이다. 대화를 통해서 문제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 기도는 문제의 근본을 보게 하며, 상처 없이 문제의 뿌리를 없앨 수 있는 위력이 있다.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볼 기회를 준다. 부부간의 관계와 의사소통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며,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비전을 향해 나가는 것이다.



김성목 1995년에 개설된 아버지학교 1기를 수료하였으며, 현재 두란노 아버지학교 운동본부 국제운동본부장으로 아버지학교를 이끌고 있다. 저서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슴도치 부부의 사랑』(이상 두란노), 『그 남자가 원하는 여자 그 여자가 원하는 남자』(김영사)가 있다.



이혼(離婚)이 아닌 Re婚을 사는 세계

☞ 송길원 목사(가족생태학자, 행복발전소 하이패밀리 대표)

가정사역자로 일하는 내가 가장 자주 받았던 질문이 있다. '다시 결혼하게 된다면 지금의 배우자를 선택하겠느냐고?' 배우자를 앞에 두고 뭐라고 답할까? 질문이 뻔하니 답도 뻔뻔스러울 수밖에 없다. 아이더러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는 질문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 아이가 답한다. '응, 엄마는 맛있는 거 사 줘서 좋고, 아빠는 나하고 놀아줘서 좋아.' 요새 아이들은 영리하다. 어른들이 답한다.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살 거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미쳤어? 너하고 살게.' 그래서 어른들은 사약하다고 한다. 내 친구는 지금의 배우자를 다시 선택한다고 자신 있게 답했다. 이유를 물었다. '다른 여자하고 또 적응해 살 것 생각하니 끔찍해서'라고 했다. 내 친구는 차라리 정직하다. 그런데도 뻔한 질문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뭘까? 일어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껏 상상한다. 로또 복권을 사 들고 '당첨이 된다면' 하고 온갖 상상에 빠질 때처럼 황홀해서다. 그런데 그 가정법이 일어나고 있다. 평균 수명이 60세에 머물던 시대는 먹고사는 일에 바빴다. 생계에 쫓

기다 허리를 펴면 바로 눈앞에 죽음이 와 있었다. 내일모레 죽을 사람이 자기 계발이니 미래의 꿈이니 따위의 사치스런 생각이나 했을까? 더더구나 부부관계는 봄의 목련이 그렇듯 팝콘처럼 피어났다가 바나나 껍질처럼 새까맣게 썩어갔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90세에 육박한 이즈음에는 달라졌다. 평균 은퇴 나이인 57세에 3년을 보너스로 얹어 60세부터 카운트를 한다 해도 90세까지 한 세대를 더 살아야 한다. 다시 태어난다면 하고 물었던 30년 세월이 눈앞에 와 있는 셈이다. 뭘 먹고 살 거냐는 염려에 앞서 또다시 한 여자와 남자로 살아가야 한다. 어떤 이에게는 축복이고 어떤 이에게는 저주가 될게 틀림없다. 오죽하면 '재수(?) 없으면 100살'이라는 말까지 나왔을까?

성경은 이른다.

“각각 기록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살전 4:4).

부부생활의 원리는 매우 간단하다. '기록'과 '존귀'이다. 우리의 부부생활에도 기록이 있거나 한 걸 일까? 더구나 서로 대할 때 존귀하게 대해야 한다고 성경이 이른다. 그것이 신사도다.

처칠은 어느 날 이런 질문을 받는다. '다시 태어난다면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처칠은 옆에 있던 아내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답한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전, 제 아내의 두 번째 남편이 될 것입니다.' 그 두 번째 결혼이 눈앞에 와 있다. 그것이 강제이건 선택이건 이전의 방식으로는 결단코 'NO'다. 'ON'으로 뒤집지 않고는 절대 안 된다. '성질 부릴 만큼 부려놓고 뒤끝은 없다고. 그 래 거기다 뒤끝까지 있으면 어떡할 건데. 한번은 몰라도 두 번은 안 돼' 어디 아내들뿐이라. '변덕스러운 성질에다 미련 곰탱이 같은 당신 비위 맞추고 또 살라고. 한 번 속지 내가 두 번 속나?' 세월이 더한다고 부부 사이가 깊어질 리 없다. 나이 먹는다고 저절로 행복해질 리도 없다. 자식들 키우고 먹고 사느라 바빴던 세월, 이제는 소진된 사랑을 보충해야 한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급유 없이 장거리를 떠날 수 없지 않은가?

축구의 '하프타임'이 있다면 연주회에는 '인터미션'(intermission)이 있다. 연주회 중간의 15분에서 20분가량의 휴식시간을 이른다. 연주자들은 한숨 돌리며 마음을 다잡아 다음 연주를 준비하게 된다. 청중들은 커피 등 음료를 마시며 연주회 평을 나누고 다음 연주를 기다린다. 전통적으로 1부에서는 서곡 비슷한 짧은 관현악곡 하나쯤, 2부에서는 교향곡이나 비중 있는 관현악곡 하나로 구성된다.

부부를 일러 '실과 비늘의 두 악장'이라 한다. 1막이 brillante(브릴란테-화려하게)로 연주되었다면 2막은 amabile(아마빌레-사랑스럽게)로, 1막이 confuoco(콘푸오코-정열적으로)로 구성되었다면 2막은 grazioso(그라치오소-우아하게)로 거기다 dolce(돌체-부드럽게 달콤하게)가 가미된다면 부부 협주곡은 그야말로 환상일 게 틀림없다. 살림살이의 첫 악장이 끝났다면 2악장은 보람 살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길고 긴 연주를 인터미션 없이 계속한다면 얼마나 지루하고 또 피곤할까? 인터미션이란 inter에 mission이 합쳐진 말로 서로의 결혼생활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돌아보는 중간 마디다. 불협화음을 막기 위해 느슨해진 악기를 조이고 연주할 곡을 훑어보는 시간이다. 다음 연주를 위해 몸가짐을 추스르고 무장할 시간이다.

1악장이 끝난 다음, 2악장의 연주가 기다리고 있는 시간, 이런 지침을 가져보면 어떨까?

1. 기회를 주자. 그 기회를 누리고 살리자.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기회'다. 자신에게뿐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기회를 주자. 기왕 다시 찾아온 기회라면 역전타를 시원하게 날려보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나? 과거의 경험을 거울삼아 흠련을 날리자.

2. '夫婦'가 아닌 '부부'로 살자.

한글의 '부부'는 한자어의 夫婦와 달리 획도 모양도 똑같다. 권리와 의무와 책임에 있어 동등하다. 전후좌우 고저장단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철저한 동등으로 새롭게 관계를 설정해 보자. 거기 진정한 한 하나 됨이 있다.

3. 살림살이에서 보람살이로 기어를 변경하자.

먹고 사는 생계에 바빴다면 이제는 보람된 일을 찾아 나설 때다. 자서전도 써 보고 꿈의 여행이라 불리는 크루즈도 떠나 보고 춤도 배워 파티에 나서보면 어떨까? 해 볼 일은 수도 없이 많다. 서로에게 더 많은 마음과 정성을 쏟아보라.

4. 등정(登頂)주의에서 등로(登路)주의로 바꾸자.

등정주의는 '높은 곳'에 관심이 있다. 등로주의는 높은 곳보다 '어떤 길'이냐에 더 큰 관심을 둔다. 메리지가 정상에 오르기 위해 기를 썼다면 뉴리지(new+marrige)는 남이 가지 않는 그 길을 찾아가자. 그리고 훗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나를 올라운 높이로 재지 말고 헤쳐 나온 길로 재달라'고.

5. 머리로 살지 말고 이제는 가슴으로 살자.

머리로 판단하고 비판하던 삶에서 이제는 따뜻한 가슴으로 위로하고 공감하는 삶을 살아보자.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에도 감탄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자. 자주 손뼉 쳐 주고 위로하고 격려를 아끼지 말자.

6.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를 만들자.

이력서(履歷書)보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감동하게 할 우리들의 이야기다. 우리만의 이야기를 쓰자. 감동적인 서정시를 남기자. 두고두고 읽힐 삶의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가자. '당신 생각을 커 두고 잠들었습니다'(함민복)는 시(詩)가 나의 시가 되게 하자.

7. 기성복이 아닌 맞춤형 행복을 찾아내자.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며 살아왔던 세월을 이제는 내 스타일로 개성 있는 행복을 찾아내야 한다. '꽃이 눈치 보고 피나? 새가 손뼉 쳐야 노래하나?'는 당당한 마음가짐으로 내가 즐거워서 하는 그런 삶을 찾아가야 한다.

8. 과거에서 벗어나 치유의 여정을 떠나자.

아프니까 사랑이다. 아픈 없는 사랑이 어디 있나? 이젠 '무(無)서운' 사람이 되자. 무엇보다 과거는 버리고 내일의 염려는 접자. 어제의 비로 오늘의 바지를 적실 필요 없고 내일의 비를 위해 오늘 우산을 꺼들 필요 없지 않은가?

9. 죽음준비로 사는 준비를 하자.

어떤 사람은 25세에 이미 죽어 버리는데 장례식은 75세에 치른다. 어떤 사람은 75세에 장례식을 치렀는데 여전히 살아있다. 영원히 살기 위해 죽음을 준비하자. 미리 유언장도 쓰고 장례식 설계도 미리미리 해 두자. 죽음은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다.

10. 기업가(企業家)에서 기업가(起業家)로 거듭나자.

기업가(企業家, businessman)가 수익과 생산에 목적을 두었다면 기업가(起業家, entrepreneur)는 가치의 창출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이제는 우리 가문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한다. 나비섬(나눔·비움·섬김)에 답이 있다.



굳이 십계까지 아니라도 좋다. 이런 다짐 하나면 주어진 결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 세상 모든 부부는 자신의 사랑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을 사랑해야 한다.'
'이 세상 모든 부부는 사랑의 증표로 약속해야 한다. 그리고 그 약속을 증명해 내야 한다.'
'이 세상 모든 부부는 약속을 지킬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미처 지키지 못한 약속을 위해'.



송길원 고신대, 동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상담심리 전공), 미국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졸업(목회학 박사). EBS 송길원 스페셜, SBS 명사특강, KBS 시사토론, MBC 패널 등 방송을 통해 행복을 전염시키고, 대표로 있는 하이패밀리는 2004년 5월 15일 가정의 날에 기관최초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가정사역스타트>, <행복의 씨앗을 배달합니다>, <가정에배 날다다행복을>, <스위트홈바이블>, <행복을 낚는 말 한마디> 등이 있다.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기초과정 8기 선발

강사진	세계관 수업
손봉호(고신대 석좌교수)	신국원 교수의
조정민(CGN TV)	기독교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이인용(삼성전자)	미디어 수업
신국원(총신대)	스토리텔링
강진구(고신대)	카메라 이론 및 촬영실습
성인경(라브리)	영상연출
이승구(합신대)	기획안구성, 촬영, 편집
임춘택(경남대)	뉴스제작, 스튜디오 촬영실습
장유진(PD)	넌리니어 편집이론 및 실습
유지은(PD)	인터랙티브아트
박정현(한국예술종합대학)	영상캠프(3박 4일)
이철원(CGN TV)	영상포트폴리오 제작
김도태(사진작가)	

지원자격 : 대학 재학 또는 졸업자
(세례교인, 74년 이후 출생자)
접수 : 2012. 8. 6(월)~9. 20(목)
면접 : 2012. 9. 22(토)
합격발표 : 2012. 9. 27(목)
교육기간 :

2012. 10. 6(토) ~ 2013. 2. 2(토)

매주 토 오후 1:00~오후 6:00
서울국제크리스천 아카데미 (양재동)

수강비 1,500,000원 ▶ **등록금 300,000원**
성적 우수자 장학금 지급, 취업 추천서 발급

세계관아카데미

현대사회 세계관 비평

강사진	커리큘럼 총 15주(30시간) 코스
손봉호(고신대 석좌교수)	동양적 세계관(3주)
조정민(CGN TV)	: 유교, 불교, 사머니즘
이인용(삼성전자)	문화관/사상(3주)
신국원(총신대)	: 문화, 포스트모더니즘, 뉴에이지
안점식(아신대)	사회과학(5주)
김승욱(중앙대)	: 경제, 기업, 노동, 국제, 정치
김태환(명지대)	자연과학(2주)
유정철(경희대)	: 진화론과 지적설계
박희주(명지대)	사회윤리(2주)
등 다수의 강사진	: 생명, 낙태 및 안락사, 동성애

접수 : 2012. 8. 6(월)~9. 20(목)
면접 : 2012. 9. 22(토)
합격발표 : 2012. 9. 27(목)
교육기간

2012. 10. 6(토) ~ 2013. 2. 2(토)

1~8주 오후 1:00~오후 5:00
9~15주 오후 1:00~오후 3:00
서울국제크리스천 아카데미 (양재동)

수강비 500,000원 ▶ **등록금 150,000원**
수료자에게 수료증 발급

기독교세계관 아카데미

수강신청 cmca.or.kr

교육문의 02.754.8004 cmca@worldview.or.kr(담당: 홍정석 간사)

본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기관에서 후원하며 수강생은 입학등록금만 납부합니다.
또한 커리큘럼의 기본방향은 동일하나 강의 진행에 따라 일부과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

주소

이름

연락처

□□□□-□□□□

제40335호

발송유효기간
2012.5.1~2014.4.30

용산우체국

받는 사람

서울시 용산구 이촌2동 212-4 한강르네상스빌 A동 402호

전화 02-754-8004 팩스 0303-0272-4967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월드뷰 담당자 앞

□□□□-□□□□

후원신청서 (CMS 출금이체)

신청이 정보	상호(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 메 일	후원금액 □ 3,500원 □ 5,000원 □ 10,000원
	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배송주소

【CMS 출금이체 약관】
 1. 위의 본인(예금주)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본인의 지정출금계좌에서 수납기관이 정한 지정 출금일(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출금대체 납부하여주시십시오.
 2.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3. 출금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지정 출금일 현재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또는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4. 지정 출금일에 동일한 수준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 우선 순위는 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5.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수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어 지며 수납기관으로부터 사전 통지 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하겠습니다.

6. 출금이체 신청(신규, 해지)은 해당 납기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키로 하여 출금요금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8.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지정출금일에 입금된 타 점권은 제외)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9. 이 약관은 신청서를 수납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출금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동의서】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다음 금융거래정보(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출금이체를 신규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상기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 제정경제명령」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위 CMS 출금이체 약관 및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동의서에 따라 위와 같이 출금이체거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본 후원신청서를 보내주시면 홈페이지에 이름과 비밀번호(0000)가 일괄 등록됩니다.



“ 월드뷰 편집부에서는 독자들의 후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드뷰를 읽고 느낀점이나 바라는 점을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선정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독자 후기를 보내실 때는 이름과 전화번호, 직업, 주소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WORLDVIEW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2012. 7월)

- 회원후원**
- 2천5백** 박진호, 3천 구재형, 김성권, 김창현, 윤경선, 임고윤, 조성진, 3천5백 가월현, 강동훈, 김희원, 노승우, 노주하, 백경은, 백선희, 생명의강, 영음사, 유경상, 정세열, 진성자, 최승오, 최원길, 한민좌, 한진영, 황보난이, 5천 고은하, 구성덕, 구재환, 권명중, 권지연, 김원평, 김경식, 김경희, 김기현, 김남진, 김대용, 김미정, 김병국, 김봉오, 김상욱, 김성민, 김성은, 김성찬, 김영윤, 김정명, 김정심, 김정원, 김정준, 김준, 김준희, 김철수, 김태윤, 김향아, 김혜창, 김효태, 마민호, 박광제, 박기연, 박상균, 박승룡, 박준모, 박천규, 박해일, 배기선, 배도환, 범경철, 손세용, 손영일, 송동민, 송시섭, 송철호, 신기혁, 신찬용, 심정하, 안현상, 양영태, 우수민, 유은자, 유창은, 유충열, 윤종선, 이경미, 이근배, 이길수, 이노윤, 이덕재, 이명진, 이승환, 이영홍, 이원배, 이윤희, 이은미, 이은미, 이은순, 이인수, 이진영, 이한길, 이향연, 이향숙, 임선제, 임재영, 임춘택, 임형준, 장욱경, 장현일, 전정진, 전종국, 정수빈, 조은아, 조인진, 조해경, 주경식, 지경순, 진재근, 천하은, 최광수, 최동희, 최영태, 최유, 한배선, 한정호, 허재일, 홍승기 7천5백 고상섭, 권오현, 민수진, 영암교회, 최병호 1만 강은정, 강호식, 고은님, 고현경, 권민규, 권사아, 권순범, 김경원, 김경희, 김고운, 김광순, 김기웅, 김동우, 김성경, 김성상, 김성인, 김세령, 김세완, 김세중, 김영완, 김영화, 김요한, 김원, 김은덕, 김은순, 김은혜, 김정란, 김정일, 김정호, 김종국, 김중훈, 김진아, 김홍섭, 김효숙, 나동훈, 남서희, 류의근, 류화원, 박강국, 박대원, 박두한, 박시운, 박영주, 박유진, 박종우, 박종원, 박종훈, 박창우, 박한배, 박혜경, 서화진, 소종화, 송미정, 송종철, 신상형, 신성혜, 신현주, 신호기, 안석, 안용준, 양병국, 양행모, 양혜원, 우관석, 원호영, 유영준, 유지황, 윤동수, 윤매옥, 윤상현, 이경숙, 이관후, 이규현, 이길형, 이명동, 이명수, 이명현, 이문원, 이상수, 이상수, 이승엽, 이시영, 이신영, 이언구,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은자, 이은주, 이정규, 이정기, 이정길, 이종국, 이지연, 이한길, 이해리, 임지연, 장승재, 장인숙, 장태준, 전명희, 전성규, 정은희, 정정숙, 정현주, 조백형, 조용현, 주성철, 차정규, 최삼열, 최성두, 최영찬, 최용준, 최진우, 최진호, 최한빈, 추진연, 한인관, 한혜실, 한화진, 허찬영, 허현, 현승건, 홍선호, 홍철의, 황세환, 황태연, 황혜정 2만 강대훈, 김옥태, 김용식, 김인숙, 김정호, 김해경, 노용환, 박영혜, 박한, 배성민, 배은경, 변우진, 우시정, 이대환, 이명희, 이현정, 전광학, 제양규, 2만2천5백 홍혜진 3만 김동원, 김광룡, 김상범, 김승남, 두레교회, 박문식, 박상진, 박연호, 서성록, 오익석, 우병훈, 이근호, 이대희, 이은실, 이창규, 이현욱, 임희옥, 장수영, 정동섭, 정상록, 조무성, 조무성, 추태화, 황의서, 황정진 5만 김민철, 김성락, 김시호, 서진희, 손봉호, 손봉호, 송인규, 신국원, 윤석찬, 정희영, 조성대, 채기현, 최현일, 한윤식, 현은자, 6만 정은애 7만 박진규 9만 양승훈 10만 김원수, 김의원, 김태환, 박상은, 양인평, 전광식, 한정화 12만 최정일 15만 양승훈, 20만 차명실, 30만 김승욱 120만 유정철

- 기관후원**
- 7천5백 영암교회, 5만 개봉교회, 새안락교회, 성덕중앙교회, 예심교회, 중앙대학교회 안성캠퍼스, 10만 군산성광교회, 남서울은혜교회, 영성교회, 산정현교회, 상록회계법인 새로남교회, 샘물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교회, 신석교회, 언약교회, 자운교회, 주님의은혜교회, 참빛교회 15만 백석대학교 20만 국군중앙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70만 사랑의교회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재정내역은 매월 홈페이지(worldview.or.kr)를 통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민과 삶 속의 수많은 생각들을 풀어내는 유일한 기독교세계관 잡지 『월드뷰』, ”

『월드뷰』가 여러분 삶 속에 계속 할 수 있도록 함께 후원하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홈페이지(worldview.or.kr)를 방문하시거나 CMS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월드뷰』의 비전에 동역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결혼은 불완전한 사람을 위하여

☞ 두상달 장로(가정문화원 이사장)

키스는 사랑의 시작인 동시에 갈등의 시작이다.
결혼의 절반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다.
10쌍의 부부 중에 4쌍이 헤어지고 있다.
결혼날짜 잡아놓고 혼삿감 마련하다
마음 상하며 헤어지기도 하고
신혼여행 길에서 따로따로 돌아와 헤어지기도 한다.
어렵게 만나 너무도 쉽게 헤어지고 있다.
하루도 떨어져서는 못살겠다고 소리치더니
이제는 한시도 같이 못 있겠다고 아우성이다.

Feel의 유효기간

결혼하려면 Feel이 꽃혀야 한다고 한다. 그 Feel이 문제다.
Feel이 잘못 꽃히니 갈등이다.

Feel? 무슨 뜻일까?

한눈에 반하는 것이다.

느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아니다.

정확한 표현은 “콩깍지”이다. 착각이다.

판단력의 부족이다.

이성 간에 필요 한번 꽃히면 사랑의 호르몬이 나온다.

마약성분이 있다.

상대방의 장점만을 본다.

반대하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 상대의 결점은 보지도 못한다. 상대방을 어떻게든 행복하게 해주려고 한다.

상대를 위해 갖은 창의적인 발상과 방법을 동원한다.

그래 결혼은 판단력의 부족. 이혼은 이해력의 부족. 재혼은 기억력의 부족 때문이라고도 한다.

결혼 후 사랑의 호르몬이 일생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랑의 호르몬의 유효기간은 1,000일 정도이다.

모르핀과도 같은 사랑의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상대의 결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콩깍지가 벗어지는 것이다.

결혼 전에는 성숙한 사람, 멋있는 사람만 보였다.

그런데 같이 살아보니 성숙한 사람만 보이는 것이 아니다.

유치한 아이도 보인다. 상처입은 아이도 보인다. 나와 다른 것이 보인다.

결혼 전에 한쪽 눈으로만 본 것이 문제였다. 한눈에 반한 것이 문제이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상대의 장단점을 볼 수 있는 두 눈으로,

결혼 후에는 상대의 장점만을 바라보는 한눈으로 살라고 한다.



맞는 게 없어

내 아내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우리는 맞는 게 없어”이다.

사실 맞는 게 없다. 기질이며 성격도 다르다. 식성도 다르다. 가풍과 습성도 다르다. 잠자는 것도 다르다.

하나는 종달새 하나는 올빼미형. 정말 맞는 게 없다.

나는 외향성에 급한 성격, 내 아내는 느리고 침착한 형이다. 솔직한 표현

은 내 아내는 속 터지는 형이다.
 그래서 때로는 꼬이기도 하고, 영키기도 한다. 부딪치고 냉랭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런 파고를 거쳐 43년째 아직도 같이 살고 있다.
 결혼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종합예술이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것을 틀렸다고 하니 문제다 틀렸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틀려먹었다고 비난하니 열을 받는 것이다.
 이 다른 것은 차이이고 개성이다.
 달라서 다양성을 누릴 수 있다. 단색은 단조롭다.
 단음도 단조롭다. 다른 색 다른 음끼리의 조화가 아름답다.
 다른 것은 차이이고 그런 차이가 우열을 만드는 것이다. 차이가 경쟁력이다.
 한동안 코드가 같다는 말을 많이 했다. 코드가 같은 사회는 다양성도 창의력도 없다. 바보들로 가는 사회다.
 퇴보하는 사회이다. 북한이라는 집단은 주체사상이라는 단일 코드로 된 사회이다.
 부부도 다른 사람으로 만나야 다양성을 누릴 수 있다. 서로 보완의 관계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이질적인 결혼은 부딪치고 갈등을 빚게 된다. 그러나 조화를 이룰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다.
 자녀도 건강하고 우성의 자녀가 태어난다.
 그래서 “잡종 강세”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비슷한 사람끼리의 동질적인 결합은 갈등이 적고 순탄할 수 있다.
 하지만 밋밋하고 다양성이 없고 발전이 없다.



결혼 전 장점이 결혼 후 단점

결혼 전에는 나와 다른 것이 매력이다.
 그래서 필이 오기도 한다.
 대화가 잘되는 집안에서 자란 여자가 말 없는 남자를 만났다.

듣직하고 무게가 있어 믿음직스러웠다.
 그래서 결혼했다. 살다 보니 어떨까?
 말 없는 사나이, 목석 같은 사나이, 이 무뚝뚝한 사나리와 같이 사는 여자가 행복할까?
 아니다.
 결혼 전에 나와 다른 것이 좋아 보였는데 살아보니 아니다.
 좋아 보였던 장점이 같이 살아보니 단점이다.
 자기와 같이 되라고 안달을 부리고 성화를 부리니 스트레스이다. 그래서 갈등이다.
 결혼 전에는 좋아 보였던 차이와 장점이 결혼 후에는 단점이 되는 것이다.

결혼은 불완전한 사람을 위한 제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다.
 결혼은 100점짜리와 100점짜리가 만나 200점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결혼은 30점과 40점이 만나 100점, 200점으로 향해 가는 것이다.
 나는 100점인데 상대는 50~60점이라고 생각하니 문제다.
 부부는 불완전한 사람끼리 만나 서로 보완하며 도와주는 관계이다. 그것이 돕는 배필이다.
 그러나 바라는 배필은 상대를 내 입맛대로 고치려고 한다.
 고치기 위해 지적하고 비난한다. 그래서 파경으로 가는 것이다.
 잔소리해서 상대를 고칠 수 없다.
 상대를 고치려거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다. 상대를 고치려는 아무진 생각을 버려야 한다.
 상대를 고치는 방법은 상대를 고치겠다는 내 생각을 고쳐먹는 것이다.
 나도 내 아내 몇 가지를 고쳐 보려고 장단기 전략을 구사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였고 갈등의 골만 깊어갔다.
 아내를 고쳐보려고 계속 시도 하던 때, 기도 중 어느 날 주님이 말씀 하시는 것 같았다.
 “내가 고쳐 보려고 30년 해봤는데 안되더라. 너 나 한번 고쳐 보거라.”
 그 후 내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내가 달라지니 아내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내가 변하니 자녀가 변하기 시작했다.
 내가 달라진 것만큼 내 가정이 변화되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아내와 같이 이 일을 하고 있다.



두상달 국내1호 부부강사인(사)가정문화원 두상달 이사장은 기업특강섭외 0순위의 인기강사다. 칠성산업(주)을 경영하는 기업인이면서 중동선교, YFC, 기아대책기구 등 이사장으로 섬기며 또 부부가 같이 방송활동과 강의를 하고 있는 멀티플레이어이기도 하다. 저서로<아침키스가 연봉을 높인다>, <결혼, 천일 안에 다 싸워라> 등이 있다.

과거로부터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반성하는 지혜를 배우다

☞ 대담, 사진 및 정리: 김건주(본지 편집인)

월간 월드뷰는 지난 6월 여름 입구, 광화문 근처 녹음이 짙은 야외 카페에서 최근 <권력과 신앙>(CKoBook)을 출간한 추태화 교수(안양대 기독교문화학과)를 만났다.



이 시기에 이 책을 출간하게 된 동기, 목표에 관해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2009년도에 제가 재직하고 있는 안양대학교로부터 연구년을 받았습니니다. <권력과 신앙: 히틀러 정권과 기독교>라는 제목은 1981년 유학 초기부터 마음에 담아오던 숙제였습니다. 어떻게 루터를 낳은 종교개혁의 나라, 괴테, 쉴러, 헤겔 같은 이상주의 정신을 세계 유산으로 남긴 교양과 문화의 나라가 오명(汚名)의 제국으로 돌변할 수 있는가! 연구년에 그동안 모아온 자료를 정리하면서 집필하여 책으로 출간했는데, 역사적인 자료 사진이 미비했었습니다. 그래도 2012년은 지나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 약간 보완하여 올해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가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올해 대선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뭔가 각성의 기회를 던지고 싶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에 “장로 대통령” 운운하며 많은 교역자가 강단에서 정치성향 발언을 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장로니까 짝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기까지 했습니다. 신앙은 정치권력과 손잡아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소견입니



<권력과 신앙: 히틀러 정권과 기독교>라는 제목은 1981년 유학 초기부터 마음에 담아오던 숙제였습니다.

다. 신앙이 힘의 논리에 기댈 때 왜곡되거나 타락하게 되는 게 영성의 본질이니깐요.

이 책은 나치즘의 중심에서 있던 히틀러가 어떻게 기독교를 활용해서 정권을 잡았는지 적나라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외중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상황을 오판(誤判)하여 나치즘의 하수인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 이기적인 민족주의가 어떻게 국민과 신앙을 오판의 미망으로 몰고 갔는지 자료를 토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지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의 독일 상황이, 1930년대 한국 상황 그리고 2010년대 한국 상황 사이에 유사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관련해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1930년대는 독일과 한국에 상당한 유사성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나치 치하에, 한국은 일제 식민지에 신음하고 있었지요. 독일은 서구 연합국으로부터 민족자존의 과제를, 한국은 일제로부터 독립에 대한 열망이 강하게 대두하였지요. 그 가운데 기독교,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여러 갈래로 표출되는 것 또한 신기할 정도로 유사합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한 복음주의나, 민족토착화를 앞세운 민족종교 운동이나.

2010년대 한국의 영적 상황과도 비교할 수 있는 점은 독일의 민족 종교적 경향이 전적으로 이단적 성향을 띠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이단들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는 성경을 의도적으로 편집, 왜곡하는 예도 있고, 토착화한다는 명분으로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1930년대 독일, 한국, 그리고 2010년대 한국 상황에 이 책은 실제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진실을 밝히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모두 영적 혼란기였다는 점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30년대 독일 제국기독교인(나치 추종 기독교인들의 공식 별명)들 가운데는 기독교를 국가 종교가 되게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강력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히틀러를 종교 수장에 앉히려는 이들도 있었지요. 마치 영국 헨리 8세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나치 추종자인 제국기독교가 이단성에 무릎 꿇었다면, 한국 장로교는 1938년 신사참배를 인정하는 우상숭배에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두 교회에 모두 역사청산, 속죄가 숙제로 남아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과연 “광명의 천사”(고후 11:14)로 가장한 사탄의 세력이 공공연히 활보하는 시대에 누가 복음과 교회의 정통성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하는 질문이 대두합니다. 독일은 “고백교회”에 소속된 성도와 교역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인정하고, 복음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했던, 바보 같아 보였던 신앙인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개신교계에서는 대표적으로 본회퍼, 니벨러, 쉬나이더 목사 같은 분들이 계셨지요.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생각했으면 혹은 행동했으면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에서 암시해 드렸듯이, 역사는 단지 지나간 과거사의 기억이 아닙니다. 역사는 실제로 현재에도 의미와 힘을 가집니다. 역사 속에서 의미를 만나는 이들에게 역사는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고 교훈하여 가르치신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역사적 상상력은 예언자적 상상력으로 승화하고 실현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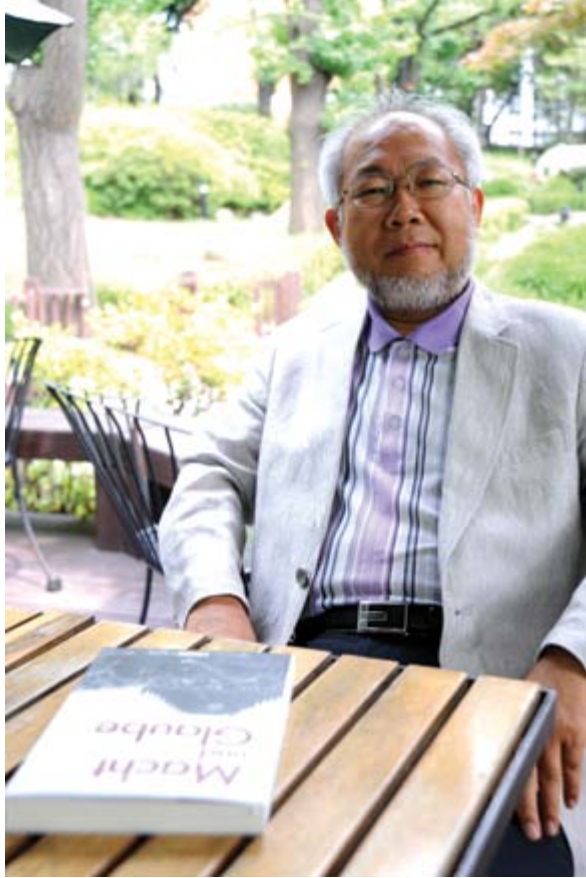
1930년대 독일 교회 이야기는 현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많습니다. 먼저 구약과 신약의 구체적인 재현이라 불릴만합니다. 현재를 비유적으로 사도행전 29장 후 30장으로 부르듯, 당시 독일 교회는 성경이 예언하는 종말론적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히틀러는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했고, 나치는 영적으로 변질한 좀비로서 의롭게 살려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고, 나치당은 사탄의 제국, 바빌론의 상징으로 군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종말의 세계를 영화처럼 보는 듯 합니다.

이런 시대는 현재 우리의 상황과도 유사합니다. 온갖 종교가 시장에 나와서 현란한 구원의 길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히 종교산업이라 아니할 수 없지요. 현대의 종교는 인간 구원에 최종적 관심이 있지 않아 보입니다. 많은 종교는 영적 상품을 만들어 파는 장사치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경우, 본회퍼 목사님은 “값싼 은혜”에 그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해답은 바로 고백교회가 고백한 신앙고백에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다른 복음”(갈 1:6~9)에 현혹되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골 1:24)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정치 영역에서는 다른 영역(문화, 교육)에 비해 활동이 저조한 편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견해는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정치화, 복음의 정치화, 교인들의 정치 세력화를 철저하게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인들이 정치 세력과 결합하면 교회도 부흥하고, 전도, 선교의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믿는 생각은 비기독교적입니다. 민족 복음화는 정치로 실현될 성질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민족주의를 잘못 수용하여 결합할 때 기형적 민족주의가 탄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로 이뤄



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나치 시대의 제국기독교인들이 이 점을 오판했습니다. 제 책을 통해 대답한다면 복음으로 정치를 변화시키고, 복음의 정신으로 정치인들이 국가와 국민을 섬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권력은 정치인들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자각하고, 정치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력을 잠시 맡아 선한 일에 활용할 임무를 맡은 청지기라는 정신, 그것이 요구됩니다. 교인들은 선한 일에 참여할 “하나님의 동역자”(고전 3:9)들이지요. 시대가 그러지 못할 때 교인들은 고난에 능동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발전을 위해 제언해 주실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나치주의자들은 각종 게르만-아리안 신화, 북구(北歐)의 전설, 민족주의, 반유대주의, 제국주의, 생물학적 우생론, 신학 이론 등을 들어 기독교인의 혼을 혼란케 했습니다. 한 마디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혼들어놓았지요. 이로써 기독교 세계관이 혼탁해졌고 결국 신앙이 능력을 잃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고백교회가 시대를 끌어안으면서 고백한 바르멘 신앙선언은 한마디로 “말씀으로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시대의 혼란이 다름 아닌 말씀을 사이에 둔 전쟁으로 보았습니다. 나치는 성경을 왜곡하면서 교회와 교인을 분열에 빠뜨렸습니다. 고백교회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최우선적 행동은 말씀의 복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면서 말씀의 능력이 다시 드러나도록 애썼습니다. 인간의 삶과 사회의 질서, 진실은 여기서부터 샘솟는다고 본 것이지요. 이처럼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밑바닥에는 성경이 기초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향해 말씀하시는 성경의 육성을 왜곡되지 않게 진리의 길을 평탄케 하는 운동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가치, 의미의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의 진리임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진리를 드러내고, 구원으로 이끄는 것을 역사를 통해 깨닫습니다.

〈권력과 신앙〉에 관한 토론을 참고, 동참하고자 하는 분은 출판사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www.ckobooks.com



추태화 안양대학교 신학대학 기독교문화학과 교수. 단국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한 뒤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 기독교문학, 철학, 사회학(M.A.)을, 그리고 아우그스부르크 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과 신학을 공부했다(Ph. D.). 문학과 문화 비평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일생의 사명으로 삼고 우리 사회가 건강한 문화적 상상력을 통해 맑고 풍요로워지기를 꿈꾸는 기독교 문화운동가이다.



대중문화 속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선 두 가지

요즘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큰 걱정거리이지요. 수업시간에 아예 엎드려 잠을 자거나 딴짓을 하는 건 일상이 되었을 만큼 선생님과의 관계는 일그러졌고, 또래끼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우정이나 의리보다는 폭력이나 왕따 같은 말이 먼저 필요합니다.

◎ 박진규(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의 문화를 그들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애쓰는 것처럼 젊은 세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품으려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큰 걱정거리이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으로 어른들을 당황하게 하기 일쑤입니다. 아이들이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업시간에 아예 엎드려 잠을 자거나 딴짓을 하는 건 일상이 되었을 만큼 선생님과 과의 관계는 일그러졌고, 또래끼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우정이나 의리보다는 폭력이나 왕따 같은 말이 먼저 필요합니다.

지난달에는 청소년 드라마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통해서 우리 자녀의 학교생활을 들여다보았는데, 이번 호에는 청소년의 모습을 그린 대중문화 작품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대중문화는 청소년들의 삶을 왜곡하기도, 때론 일방적으로 폄하하기도 하지만, 어른들이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도구가 되기도 하니까요.

대학생 선교단체 IVF 대표 김종호 목사가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역은 마치 타문화권 사역을 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만큼 기성세대 눈으로는 젊은이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현장에서 오랜 시간 젊은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얻은 교훈은, 타문화권 종족

몇 달 전 한 신문 1면에 “요즘 중학교의 현실”이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 하나가 실렸습니다. 중학교 교정에서 남녀 학생이 부둥켜안고 입을 맞추는 모습이었습니다. 3면에는 학교폭력 문제를 심층 분석하면서 또 하나의 사진을 게재했는데, 교실 창밖으로 담배를 피우는 학생의 반쯤 가려진 얼굴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학교… 점심시간 교실에서 담배 피우는 고교생”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진들이었습니다. 아무리 공교육이 붕괴하였다지만 학교에서 버젓이 그런 일탈을 하다니요.

그런데 이 사진들은 청소년을 바라보는 기성세대 어른들의 시선과 닮았습니다. 학교를, 그 속의 아이들을 아주 멀리서 망원렌즈를 통해 바라봅니다. 거기서 보이는 단편적인 장면들만 보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가로짓습니다. 정작 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고민은 무엇인지, 이런 일탈적인 행동이 자신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별로 알려고 하지도, 물어보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래에 소개할 두 개의 대중문화 작품은 다른 시선으로 청소년을 바라봅니다. 소위 ‘문제아’라 불릴만한 아이들을 다루고 있지만, 그 문제의 결과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미묘하고 복잡한 심리, 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과정과 상황을 그려줍니다. 타종족으로 바라봐야 할 만큼 진심 어린 이해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하여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먼저 2011년에 개봉했던 영화 <파수꾼>입니다. 독립영화였지만 관객 수도 꽤 되었고 특히 작품성에 대한 호평이 많았습니다.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타기도 했지요. 영화 <건축학개론>과 TV 드라마 <패션왕>에 나왔던 배우 이재훈이 고등학생으로 출연해 좋은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화는 고등학생 친구 세 명의 이야기입니다. 기태는 학교의 이른바 “짱”으로, 중학교 때부터 친하던 동운, 같은 반 희준, 이렇게 셋이서 항상 붙어 다니는 단짝입니다. 어머니가 없는 기태는 언제나 밖으로만 도는 아버지의 무관심으로 친구들에게까지 가족 얘기는 꺼내지도 않습니다. 의리파인 동운이가 기태와 희준을 연결해 주었고, 이들은 동운의 여자친구 세정이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지냅니다.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의 희준이는 우연히 자신이 좋아하는 여학생이 기태에게 고백하는 걸 본 후 다시는 기태를 전처럼 대하지 못합니다. 기태는 이유도 모른 채 자기를 멀리하는 희준이를 참지 못하고 그만 폭력을 행사하고 말지요. 이후 기태의 ‘일진’ 패거리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희준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버림으로써 관계를 단절해 버립니다.

기태는 희준이와 화해하고 마음을 돌려보려 애쓰지만, 오해로 동운이와의 관계마저 틀어지면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여긴 동운에게까지 자신을 부정하는 말을 듣게

된 기태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게 되지요. 기태의 아버지는 뒤늦게 아들의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아들 삶의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갑니다.

학교폭력과 왕따, 자살에 이르기까지 청소년들의 삶을 묘사하는 말들이 점점 끔찍해지는 요즘, 이 영화는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아이들도 그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아이들일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사소한 오해, 그것이 만들어낸 간극을 메꾸는 데 익숙지 못한 아이들의 모습이 현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이 영화는 또 청소년 또래끼리의 소통방식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 줍니다. 스스로 속마음을 읽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여 상대방에게 드러내는데 미숙한 아이들은 “너를 친구로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 “잘못된 것은 없어. 그냥 너만 없었으면 돼”라는 말을 내뱉으며 상처를 주고받지요. 청소년들의 폭력과 일탈이 매우 거칠게 그려지지만, 그 주인공들의 모습도 낯설거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 사이에 관계를 맺고,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아이들만의 방식과 함께 그 미숙함이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결과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무엇보다도 뇌리에 남는 건, 언제나 절박하게 관심과 인정을 찾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서로 다른 모습의 기태와 동운, 희준, 그리고 일진 아이들까지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애정에 목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에게서, 이성에게서, 가족에게서 그것을 찾으려 하지만 거절당했을 때 겪게 되는 좌절과 방황이 이 영화 속 청소년들의 공통된 아픔입니다.



또 하나의 작품은 웹툰, 즉 인터넷에서 연재되는 만화 <패션왕>입니다. “기안84”라는 필명의 젊은 작가가 작년부터 연재한 웹툰인데, 매주 새로운 에피소드가 업데이트되면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지금은 좀 시들해졌지만 언제나 재기 발랄하고 예상을 뒤엎는 아이디어와 표현방식으로 화제를 몰고 다녔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는 대단했지요.

대략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17살 우기명은 공부밖에 모르던 조용한 학생입니다. 어느 학교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아이였지요. 그러던 기명이가 같은 반 여학생 혜진이의 마음을 사

기 위해 큰 변신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신분을 상징한다는 “노스페이스” 패딩을 인터넷으로 구입한 것을 시작으로,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앞머리를 내려 자른 일명 “시각포기컷”과 극단적인 스키니 스타일로 수선한 교복패션으로 학생들이 마련한 “간지배틀”에서 최종 우승하게 됩니다. 이후 기명이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지요.

사실 스토리 자체가 얼마나 현실적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그리는 학교와 학생들의 모습에 청소년들이 열광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자신들의 감정과 속내를 그 어떤 드라마나 영화보다도 잘 표현해준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패션왕>에서 그려지는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자신들에게 부여한 서열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공부와 석차, 미래를 결정할 “스펙”이 학생들 사이에서의 질서를 만들 것이라고 짐작하고 또 그렇게 대접합니다. 자녀의 친구들을 향해 “개는 공부 잘 하니?”라고 묻는 건 그 서열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되는 아이들이 겪을 불행은 염려하기도 하지만, 그런 질서와 서열이 불가피하다고, 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학교 학생들의 생활에서 이런 질서는 그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공부나 석차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찌질”한 애들이나 신경 쓰고 목매는 것일 뿐이지요. 이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질서 속에서 중요한 기준은 다름 아닌 패션입니다. 얼마나 “간지”나는지에 따라 신분이 달라지고 서열이 매겨집니다. 여기서는 어른들의 질서인 성적에서 낙오되었던 아이들이 더 앞서나가기도 합니다. 오히려 기명이처럼 신분상승을 위해 공부를 포기하면서까지 여기에 편입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판타지의 성격이 강한 웹툰으로 청소년의 현실을 말하는 건 무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응하고 환호하는 청소년들에게서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는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자신들의 삶에 중요하다고 규정한 것들에 그저 순응하지 않습니다. 공부처럼 잘 와 닿지 않는 것보다는 더 명백하고 더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대신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패션, 외모라는 비본질적인 것이 어떻게 의미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존 사회가 강요하는 것에 대해 청소년들 스스로 내놓는 반작용이라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질서 속에서도 여전히 철저한 위계와 그에 따른 성패가 어른들의 그것을 꼭 빼닮았다는 게 서글프기는 합니다.

청소년을 이해하고 그들 세대와 공감하는 건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회는 어떠한지, 그들 눈에 비친 어른들의 세상은 어떠한지, 스스로 만들어가는 작은 사회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가정의 자녀교육에서도, 교회의 청소년 사역에서도, 사회의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선택에서도 이런 시선을 가지려고 애쓰는 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우리의 노력에 청소년을 그리는 대중문화는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박진규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콜로라도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공분야는 “미디어와 종교”로서, 종교와 미디어라는 두 개의 개별 영역이 서로 교차하는 다양한 지점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딸의 결혼과 그림책

현은자(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과 교수)

저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그림책과 함께했던 유년기의 즐거운 시간을 두고두고 생각해 내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모든것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사랑받았다는 느낌은 마음 깊은 곳에 오래 오래 남아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달에 제 딸이 결혼하였습니다. 결혼 선물로 무엇을 챙겨줄까 고민하다가 아기 때 썼던 육아 일기와 용알이를 녹음한 녹음테이프와 그림책 「Coco can't wait」(고미 타로 글, 그림)를 넣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책을 학교 연구실에서 찾아보았더니 언젠가 학생에게 빌려주었는지 없고, 국내의 인터넷 서점에도 새 책이 없다 하여서 할 수 없이 중고 책을 주문해 놓았습니다.

저는 제 딸 수정이를 미국에서 공부하던 중에 출산하였습니다. 부부가 유학생생활을 하느라 아기에게 많은 책을 읽어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틈만 나면 책을 읽어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수정이가 아기였을 때 고미 타로가 쓰고 그린 「Coco can't wait」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이 책은 한 자리에서도 몇 번씩 읽어 달라고 졸라대어 결국은 하드 커버 표지도 뜯어지고 본문 종이도 너털너털해져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그림책을 못 잊어 하니 그 책을 버린 것이 두고 두고 후회가 됩니다.

고미 타로는 주로 1~3세 영아들이 즐겨 읽는 그림책을 그리는 작가입니다. 그의 작품 중에서 「Coco can't wait」는 유아가 스토리를 이해하기 쉽고 일러스트레이션이 캐릭터를 잘 묘사하고 있고 구성도 탄탄하여 영아 그림책의 모범이 되는 책이지요.

주인공 코코는 엄마와 언덕 위 보라색 지붕의 집에 살고 있고 코코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함께 다른 마을 언덕 위의 오렌지색 지붕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코코는 할머니께 꽃을 선사하려고 버스를 타고 할머니 댁에 갑니다. 그와 같은 시각에 사과를 따던 할머니는 코코가 생각나 사과 바구니를 들고 코코네 집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도중에 길이 엇갈려서 할머니 댁에 도착한 코코는 할아버지로부터 할머니가 코코네 집으로 떠나셨다는 말을 듣고, 할머니는 코코 엄마로부터 코코가 할머니를 만나러 갔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번에 할머니는 택시를 타고, 코코는 트럭을 얻어 타고 자기

집으로 가는데 도중에 또 길이 엇갈립니다. 마음이 급해진 코코는 이번엔 외밭 자전거를 타고, 할머니는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갑니다. 드디어 길에서 마주친 둘은 나를 듯이 기뻐하며 다음부터는 길 중간에서 만나자고 약속합니다. 할머니가 들고 온 사과를 먹으면서요.

글과 그림도 단순하고 소박한 그림책이지만 코코와 할머니의 서로를 향한 그리움과 사랑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어린 독자들은 두 사람이 계속 길이 엇갈려 허탕을 치는 것을 보면서 주인공과 함께 안타까워하고 초조해하다가 드디어 둘이 만나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말할 수 없이 큰 만족감과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수없이 읽어서 다음 장면과 결말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딸은 이 장면만 나오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스토리가 있는 그림책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책도 즐겁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출산한 둘째 아이는 동물이 나오는 정보 그림책을 특별하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때 우리 아이가 좋아했던 「어떻게 잠을 잘까요?」(야브우치 마사유키 글, 그림) 「달님 안녕」(하야시 아키히코 글, 그림)과 같은 책들은 번역 출판된 지 20년이 훨씬 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영아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잠을 잘까요?」는 “다람쥐는 어떻게 잠을 잘까요?”, “등글게 말고 잠을 잔대요”, “박쥐는 어떻게 잠을 잘까요?” “거꾸로 매달려서 잠을 잔대요”와 같이 묻고 대답하는 식의 구조로 되어 있어 두 박자 그림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아들은 이 책을 읽다가

벌떡 일어나 동물의 행동을 모방하며 매우 즐거워하였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웠던지요.

또한, 다 성장한 우리 아이들에게서 발견하는 흥미로운 사실은 그들이 소위 우리가 ‘애들 책’이라고 여기는 쉬운 책들만 기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림책을 읽고 때로는 어른에 못지않게 섬세하게 고통이나 슬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레드먼드 브릭스의 「바람이 불 때에는 길어도 길고 전쟁을 주제로 하는 좀 ‘어려운’ 작품입니다. 냉전시대의 핵전쟁을 소재로 하고 있는, 사실주의 그림책이지요. 등장인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평범하고 선량한 부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핵전쟁이 발발하자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정부가 시키는 핵전쟁 대비 매뉴얼대로 하나씩 따

르다가 결국 피폭의 후유증으로 서서히 죽어갑니다. 일종의 풍자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강대국의 핵 경쟁, 핵전쟁의 위협, 정부의 무능, 소시민의 순박함이 그려진 책입니다. 저는 아들에게 그 책을 읽어준 것도 있고 있었는데, 언젠가 아들이 그 책 이야기를 하며 자신이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슬픈 책이었다고 말하더군요. 이렇듯 어린 유아에게도 생의 희노애락을 맛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림책이 가진 힘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아이들과 어렸을 때 읽은 그림책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제가 “너희들... 그림책 기억나니?”라고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꺼낼 때도 있지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아이들이 먼저 그림책 제목이나 내용을 언급할 때도 있습니다. 며칠 전 아들과 함께 명동 한복판을 걷고 있는데 아들이 “저기 좀 보세요. ‘작은 집’ 같아요.”하기에 가리키는 곳을 보니, 붉은색 벽돌로 지어진, 아담한 건물이 있고 그 위에 ‘명동 파출소’라는 간판이 붙어 있더군요. 요즘 방영되는 TV 드라마 ‘각시탈’에 등장하는 종로 파출소와 외양이 닮은 일본식 건물인데 좌우에 높은 빌딩이 서 있어서 일부러 눈여겨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건물이었습니다. (명동 파출소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일제 시대에 처음 지어졌고 2010년에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리모델링되었다고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집 이야기」는 영국 작가 버지니아 리 버튼이 쓰고 그린 그림책으로서 그림책의 고전으로 평가되는 책입니다. 스토리는 어느 젊은 부부가 아름답고 한적한 전원엔 작은 집을 짓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집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아이들은 아름다운 집 주변을 뛰어놀면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집 주변에 길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길이 도로가 되고 차가 달리기 시작하더니 전철과 대중교통 기관이 사람들을 태워 나르게 됩니다. 도로망

의 확장과 함께 작은 집 주변에서는 도시화가 진행됩니다. 저 멀리 반짝이던 도시의 불빛들이 작은 집 가까이 다가오고 작은 집 옆에도 건물이 세워집니다. 얼마 있다가 그 건물들을 허물고 빌딩들이 세워지자 작은 집은 높은 빌딩으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 집에 살던 사람들도 떠나가 작은 집은 빈집이 되고, 이제 낡고 허름해진 작은 집을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을 지은 사람의 후손이 우연히 그 앞을 지나다가 그 집이 조부모의 사진 속에 있었던 작은 집인 것을 알아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그리고 작은 집을 빌딩 사이에서 들어내어 예전과 같은 전원으로 옮겨놓게 됩니다.

제 아들이 명동 파출소를 보았을 때 「작은 집 이야기」 그림책을 연상하고 그것을 저와 나누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아채고 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들의 마음 속에 그 이야기가 여지껏 살아 남아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생님은 그의 신앙 고백서 「지성에서 영성으로」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아름답다거나 그림다거나 슬프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시각 때문이 아니라 연상 작용 때문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일본 교토에서 홀로 지낼 때 교토의 설경이 너무나 아름다워 캠코더로 찍으려다가 그만두었는데, 그 이유를 그 아름다움이 시각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가 어렸을 적에 보았던 눈송이를 연상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설경을 보면서 연상 작용을 합니다. 교토의 눈을 보면서 나는 내 고향 온양의 설화산 등성이에 내리는 눈송이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장독대에 소복이 쌓인 눈과 초가지붕의 고드름 사이로 하얀 마당과 담이 보입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대상에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 데에는 ‘연상 작용’에 덧붙여 사물과 맺는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제공합니다. 이야기 속에서는 인간 뿐 아니라 사물과 동물과 식물도 인격화되어 독자적인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집 이야기」를 읽는 어린 독자들은 ‘작은 집’에 감정이입하여 같이 행복해 하고 쓸쓸해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명동 파출소를 보면서 ‘작은 집’을 연상하였을 때 그 파출소는 더 이상 차가운 벽돌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 ‘작은 집’과 명동 파출소 건물이 겹쳐졌을 때 유년기의 기억은 살아나고 그 건물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저는 삶의 풍성함은 바로 이러한 의미의 그물망 속에서 발견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저와 함께 읽었던 그림책과 그 시간과 공간에서 나누었던 많은 것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어릴 때 보았던 그림책도 좋고 새롭게 발견한 그림책도 좋을 것입니다. 혹시 삶의 분주함으로 그림책을 잊고 산다고 하더라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자기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점에서 그림책을 고르다가 자신이 어렸을 때 읽었던 그림책을 발견한다면 얼마나 반가울까요? 그리고 그 책을 자기 아이에게 읽어 줄 때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엄마의 무릎, 체온, 책 읽어주던 소리, 눈빛, 서로의 웃음소리, 자기 손으로 책장을 넘길 때의 촉감도 떠올리게 될까요? 아니, 그 모든 것이 뚜렷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엄마로부터 사랑받았다는 느낌은 마음 깊은 곳에 오래 오래 남아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온기는 자신의 무릎에 앉아서 그림책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자녀에게로 전해져 그도 역시 창조세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현은자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아동청소년학과 교수. 대표 저서로는 《그림책의 이해 1, 2》, 《그림책의 그림읽기》, 《세계 그림책의 역사》가 있으며 성균관대 생활과학연구소의 그림책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황영애, 영혼의 계절을 말하다

서성록(안동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황영애는 작품 속에 함축성을 띤 상징물을 통해 인간의 영적 삶을 조명하고 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대부분 삼자의 얘기가 아니라 생활에서 느낀 자신의 얘기를 다룬 것이다. 어떤 미사여구 없이 진솔하게 자아를 운명에 대면시키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황영애 서울대학교 조소과 및 성신여대 대학원 조소과를 졸업하고 예맥화랑, 이목화랑, 인사갤러리 등에서 지금까지 11회의 개인전을 가졌고, 현대공간회, 한국조각가협회, 서울조각회 회원으로 있다.

황영애의 조각은 흡사 운치 있는 풍경화를 보는 것 같다. 파도에 정처 없이 흘러온 어떤 사연이 담겨있을 법한 유리병이 등장하는가 하면, 얼마 안 있어 폭우가 쏟아질 것 같은 시커먼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과 시루떡에 끼인 팔처럼 크고 작은 돌들이 촘촘히 박힌 황무지가 나타난다. 그런가 하면 양증맞은 새들이 가지 위에 앉아 있는 정겨운 모습이나 탐스러운 열매와 소원을 간구하는 손 등도 발견된다. 어디선가 한 번쯤은 마주쳤을 장면들이 스틸사진처럼 흘러 지나간다. 근작을 보면 예전의 표현적인 원색조의 칼라와는 달리 회색빛이나 은빛과 같은 무채색으로 갈무리된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작품의 표면은 무채색이 주는 무덤덤한 담백함을 전달해주고 있다. 자잘한 묘사는 배제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을 간추린 것 같은 부조작품이다. 비슷한 모습이더라도 그의 작품은 사실주의자들처럼 현실의 객관묘사에 치중한 것도 아니고 전원의 화가들처럼 목가적인 정경묘출에 주안점을 둔 것도 아니다. 사생이나 풍경묘출이 관심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주 관심사라는 것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그의 작품이 상징성을 띤 것은 작품에 어떤 '의미의 지층'에 잇대어져 있다는 심증을 반증해준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을 풍경화의 형식을 빌어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한다. 이런 사실은 야콥 루이스달(Jacob Ruiael)과 얀 반 호옌(Jan van Goyen)과 같은 미술가들이 애용해온 '풍경의 메타포'가 오늘날에도 유효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의 영적 삶을 말하는 데에 매우 긴요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이것은 그의 작품에 고르게 나타나는데 그중에서도 <도착> 연작으로 제작된 몇 점의 <먼 곳에서 온 이야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맨 먼저, <먼 곳에서 온 이야기 1>은 흑백의 구성진 이미지로 되어 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드리워져 있고 그 아래로는 전봇대 하나가 처량하게 서 있다. 작가가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곳은 일기 속에서도 곳곳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의연한 존재이다. 마치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을 떠올리게 한다.

다음으로 <먼 곳에서 온 이야기 2>는 파도에 실려온 낙엽에 관한 이야기이다. 작가는 파도의 드넓음을 수직 구도 속에 담아냈고 화면에는 연실 파도가 넘실거린다. 그런 파도에 실려 조그만 유리병 하나가 떠내려 오고 있다. 그 병에 담긴 것은 다름 아니라 파란만장한 사연을 간직한 낙엽이다. 낙엽이란 가을의 정취를 알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황금기를 마친 쓸쓸한 노후를 암시하기도 한다. 작가는 어떤 의미로 낙엽을 기용했을까? 아마도 산전수전을 다 겪고 마침내 종착역에 다다르기 직전을 형용하려고 한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봄의 설렘도 좋고 여름의 활력과 생동감도 좋지만, 가을의 낙엽에서 볼 수 있는 깊은 내면의 성찰은 성숙한 영혼을 약속해준다.



먼 곳에서 온 이야기 1, Painted on F.R.P, 250x100x12 cm



아침, Painted on Bronze, 93x24x53cm

〈먼 곳에서 온 이야기 3〉은 낭만과는 거리가 먼 자갈밭이다. 화면에는 울퉁불퉁한 돌들이 지천으로 깔려 있다. 돌부리에 치이기라도 한다면 멍이 들 것같이 매우 단단하고 견고한 바위들이다. 그런데 이런 풍경을 보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황량한 사막이 그러하다. 사막에서 생명체를 구경하기 어렵듯이 자갈밭에서도 생명체를 구경하기 힘들다. 인생의 광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거기에는 온갖 모진 시련과 좌절이 되풀이될 뿐 희망과 기쁨이 없다. 황무한 땅에서 실록을 기대하기 어렵듯이 인생의 광야에서도 소망을 기대할 수 없다. 이 작품의 포인트는 눈에 잘 띄지 않는 화면 하단 구석에 있다. 메마르고 건조한 부분과 달리 이 부분에는 뭔가 촉촉하고 윤기가 흐른다. 곧 샘물이 흐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작가는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시련 속에서도 소망을 지켜가는 삶을 말하고 있다.

희망은 〈아침〉이란 작품에서 찾아진다. 문태준의 〈아침〉이란 시에는 “아침이면 새들이 키 작은 나무에 우

르르 내려앉았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바로 이 시에 착안하여 만든 작품이라고 한다. 새의 노래는 아침을 깨우는 소식이며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새는 기쁜 소식을 맨 먼저 알리는 전령이다. 제비가 먼 곳에서 찾아와 봄을 알려주듯이 작품 속의 새는 세상에 슬픔과 고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희와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듯하다. 긴 겨울 끝에 찾아오는 것이 봄이다. 새싹이 돋아난다는 것은 겨울이 물러가고 봄의 기운이 찾아온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봄은 더없이 고마운 존재이다. 〈아침〉에 찾아온 새는 세상 어디엔가 ‘온기’가 흐르고 있음을, 즉 희망의 전언을 알려준다. 탐스러운 과실수를 연상시키는 〈여름편지〉는 무럭무럭 자라나는 생명의 확장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런 확장을 엿볼 수 있는 계절은 여름철이다. 여름은 나무를 살찌우게 하며 열매를 키워 세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현상을 소비지상주의에서 발견하게 된다. 외형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다르다. 도처에 물량은 넘쳐나지만,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소비지상주의는 정신없이 보물을 쫓

지만 정작 그 보물을 누릴 줄 아는 능력을 우리에게서 앗아간다. 다시 말해 보물을 더욱 비축할 줄만 알지 그것을 누리는 법을 알려주지 않는다. 그의 〈여름편지〉는 우리에게 뭔가 더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 이미 넉넉하고 풍성하게 있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것을 보여준다.

바깥풍경을 연상시키는 위의 작품들과는 달리 〈영혼의 사계절〉이란 작품에선 각기 다른 모습을 한, 세 가지의 손동작을 발견하게 된다. 서로 다른 손동작은 각기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작가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헤아려보게 한다. 두 손을 모은 손은 무언가를 영원하고 ‘간구하는 손’이며, 무언가를 손가락으로 잡고 있는 손은 우리의 ‘집착’과 ‘욕망’을 암시하며, 낙엽을 잡은 손은 지난 ‘세월을 헤아려보는 손’이다. 지폐를 세듯이 낙엽을 세면서 남에게 숨기고 싶은 순간과 가슴 뭉클했던 순간을 헤아려보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외적인 것을 중시하는 위험을 안고 있는데 작가는 오히려 쟁기가 같고 지나간 듯한 냉정한 시선으로 이를 바라보고 있다. 우리 내면의 모습을 거울처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이와같이 황영애는 작품 속에 함축성을 띤 상징물을 통해 인간의 영적 삶을 조명하고 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대부분 삼자의 얘기라기보다는 생활에서 느낀 자신의 얘기를 다룬 것이다. 어떤 미사여구 없이 진솔하게 자아를 운명에 대면시키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그런 점에서 그의 작품은 일종의 ‘영적인 일기’인 셈이며, 어떻게 ‘마음의 동면’에서 깨어나 봄의 생기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황영애는 이 작품에서 겨울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닥쳐올 최악의 상황, 그 상황을 이겨내는 불변의 믿음을 기르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계절은 없다고 알려주는 것 같다. 근작은 종래의 갈라플하고 볼륨있는 작품에 비해 다

소 심심하거나 밋밋하게 보일 수도 있다. 보는 재미는 덜할지 모르지만, 어느 때보다 심도 있게 우리의 내면을 조명하고 있다. 우리의 눈과 의식을 현란케 하거나 교란시키는 대신 인생에서 뭐가 정말로 중요한지를 알려준다. 게다가 텅으로 시적 상상력까지 보탬으로써 한층 설득력을 유도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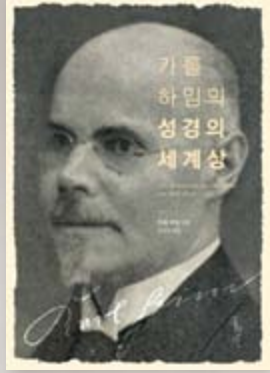


영혼의 사계절, 2012

여름이나 가을을 노래하는 미술가는 많아도 겨울을 노래하는 미술가는 많지 않다. 겨울은 여름처럼 녹음이 푸르지도, 가을처럼 풍성하지도 않다. 열매도 없고 잎도 없고 보기에도 흉하다. 모든 생명체가 으스스한 추위에 몸을 파르르 떨 뿐이다. 그러나 이 계절이 없다면, 봄을 기약할 수 없을 것이다. 작가가 겨울에 주목한다는 것은 인내심을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동시에 내면의 불필요한 욕망과 불순물을 제어하는 적기임을 말하는 것 같다. 그러므로 그의 작품에서 인생의 겨울은 더 풍성한 결실을 얻기 위한 ‘가지치기’ 같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가지치기’에는 뭔가를 더하기 위해 잘라내는 고통을 수반한다. 마크 부케넨(Mark Buchanan)의 말처럼 박탈이 실제로는 경작이며 고갈은 풍요의 원천이라는 것을 환기하는 셈이다. 우리는 ‘가지치기’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게 되니까... 꽃이 진 자리에 때깔 고운 열매가 달리는 것처럼 말이다.



서성록 안동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와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동서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저서로는 『한국 현대회화의 발자취』, 『렘브란트의 거룩한 상상력』, 『미술의 터치다운』, 『박수근』, 『렘브란트』,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등이 있으며, 공저로는 『우리 미술 100년』이 있다.



『카를 하임의 성경의 세계상』

카를 하임 지음 | 박규태 옮김 | 흥성사

◎ 최태연(백석대학교 기독교철학 교수)

이 책은 20세기 초반부터 현대과학을 상대로 기독교신앙을 변호했던 독일의 루터교 신학자 카를 하임(Karl Heim)의 Die Weltanschauung der Bible(1921)의 번역이다. 이 책이 한국의 독자들에게 알려진 것은 이미 오래전인 1980년이다. 한신대 전경연 교수가 편집한 복음주의신학총서 제24권으로 대한기독교서회에서 출판된 『성서의 세계관』이 바로 그 책이다.

이 책은 20세기 초반부터 현대과학을 상대로 기독교신앙을 변호했던 독일의 루터교 신학자 카를 하임(Karl Heim)의 Die Weltanschauung der Bible(1921)의 번역이다. 이 책이 한국의 독자들에게 알려진 것은 이미 오래전인 1980년이다. 한신대 전경연 교수가 편집한 복음주의신학총서 제24권으로 대한기독교서회에서 출판된 『성서의 세계관』이 바로 그 책이다. 번역자는 강한표 교수였다. 그 당시 대학생이었던 서평자도 그 책을 사서 읽었던 기억이 있다. 이번에 박규태 목사에 의해 새롭게 번역·출판된 이 책은 원래의 텍스트에 더하여 <죽음 뒤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란 개인의 종말에 관한 하임의 설교문을 부록으로 엮은 것이다.

카를 하임은 1874년부터 1958년까지 살았던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로서 루터교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았으며 1914년부터 뮌스터와 튀빙엔 대학에서 가르쳤다. 그의 관심은 당시 가장 영향력 있던 신학자인 루돌프 볼트만이 현대과학의 세계상으로 복음서를 ‘비신화화’ 하여 복음의 진리를 축소했던 것과는 정반대였다. 오히려 하임은 현대과학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오류이며 기독교의 하나님은 20세기 과학의 시대에도 진정한 신(神)이라는 사실을 변증하고자 했다. 그의 노력은 1931년부터 1952년까지 6권으로 출판된 『개신교 신앙과 현대사상』(Der evangelische Glaube und das Denken der Gegenwart)으로 결실을 보았다. 그가 죽은 후, 독일에서 <카를 하임 협회>가 조직되어 여러 후학이 현대과학과 기독교의 관계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매년 <카를 하임 상>(Karl-Heim-Preis)을 시상하고 있다. 또한, 이 협회에서는 <신앙과 사상>(Glaube und Denken)이란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카를 하임의 성경의 세계상』은 부록을 제외하고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의 제목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과 함께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이다. 제2장은 <타락 그리고 그 죄의 유전>, 제3장은 <십자가의 말씀>, 제4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소망>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보니 이 책의 논지는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에서 말하는 <창조>-<타락>-<구속>-<완성>의 구도와 놀랍게도 일치한다. 이 책은 하임이 1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한 직후인 1919년 초여름에 뮌스터 개신교회의 요청으로 강연한 내용을 책으로 출판했기 때문에 대중적

인 강연문체로 되어있다. 그럼에도 하임은 이 책에서 성경이 제시하는 세계관과 인생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고 있다. 그럼 각 장의 내용을 살펴보자.

제1장은 <창조>의 의미에 대해 다룬다. 하임은 1차 대전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독일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이렇게 창조의 사실과 의미를 재조명하면서 그는 당시에 밝혀진 자연과학의 성과를 최대한으로 사용한다. 그는 인간이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우주가 하나의 생명체인지, 아니면 생명 없는 거대한 형체에 불과한지를 묻는다. 만일 이 우주가 요즘 가이아 이론이 주장하는 대로 그 안에 모든 생명을 포함하고 있는 거대한 생명체라면 신과 인간과 세계는 서로 모순 없는 하나가 될 것이다. 반면에 플라톤의 생각처럼 세계는 조잡한 재료로 만들어진 사라져 버릴 카오스에 불과하다면 우리 인간은 이 물질세계에서 어떤 위로와 안식도 찾을 수 없게 된다. 하임은 이 두 극단적인 세계상 사이에서 중용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세계상이다. 하나님은 세계와 뒤엉켜 있거나 융합되어 있지 않지만, 이 세계를 만드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를 보살피고 계신다. 세계는 없어져 버릴 원소들의 집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선의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는 영원한 피조세계이다. 이러한 성경의 창조사상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의 생명이 영광스러운 목적으로 위해 창조되었음을 알게 된다.



이 책의 2장은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에 대해 다룬다. 하임은 패전의 허탈함과 상처 속에서 사는 독일인들이 타락을 바로 이해함으로써 오히려 ‘살아가려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다. “세계의 만물인 무생물과 생물 사이에서 ‘죽고 죽이는’ 생존투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아마도 낙관론자는 이 무자비한 투쟁이 선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말할 것이



다. 반대로 비판론자는 이러한 투쟁이 생의 본질이며 그에게서 벗어날 길은 이 세상을 부정하는 일뿐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하임은 성경에서 타락을 보는 가장 심오한 관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를 따르면 모든 민족에게 존재하는 낙원과 황금시대의 이야기와 그 후에 들어온 죽음과 전쟁의 이야기는 선한 창조 이후에 일어난 타락의 사실을 증거해 준다. 타락의 결과 인간은 황폐해진 땅과 왜곡된 남녀관계와 육체의 죽음에 종속되었다. 하임은 이러한 타락의 결과를 사회주의 같은 이념이나 최첨단의 과학기술이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고 확신한다.

3장에서 하임은 인종과 계급 간의 증오와 학살을 종식하는 길에 관해 이야기한다. 그는 인류가 처한 현실을 '죽음에 이르는 추락'에 비유한다. 인간은 거부할 수 없는 중력에 의해 서로 파괴하면서 추락하고 있다. 모든 인류는 마치 끈에 묶인 것처럼 이 동반추락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끈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

셨다"(고후 5:19)는 성경의 길 뿐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이 구원의 방법을 많은 지식인은 거부했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감격했지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구속하셨다는 믿음은 거절했다. 그러나 하임은 오히려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체험하고 받아들인다고 본다. 하임이 당시의 독일인들에게 한 경고는 불과 20년 후에 일어난 2차 대전을 통해 입증되었다. 1920~30년대에 독일의 과학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지만, 그것으로는 인종주의의 광기와 전쟁을 막고 인류를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인 4장에서 하임은 이 세상의 최종적인 상태가 비스마르크나 히틀러의 무력에 의해 평정된 사회도 아니며 카우츠키가 믿은 것처럼 계급과 소유가 철폐된 사회에서 누리는 풍요한 물질과 성의 자유도 아니라고 진단한다. 그가 기대하는 이 세상의 진정한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 현존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이다. 성경은 최후의 날에 모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고 최후의 심판을 통해 '새 하늘과 새 땅'(계 21:1)이 드러난다고 예언하고 있다. 이 때 세상의 모든 형상은 뜨거운 열에 의해 녹고 다시 새로운 형상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변화된 새로운 세계는 시간의 유한함과 허무를 완전히 극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세계상이 보여주는 세계의 완성된 모습이다. 이로써 카를 하임은 이 책을 읽는 한국의 독자와 90년의 시간적 간격에도 사회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변하지 않는 성경의 세계상을 독자들에게 제시해 준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된 이 세상에 타락의 그늘이 드리웠고 그 어둠을 없애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 회복된 세계가 이 세상에 실제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성경의 메시지는 어떤 시대에도 타당한 성경의 메시지요, 기독교의 세계관이다.

마지막으로 부록인 <죽음 뒤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에서 개인의 죽음과 세상의 종말 사이에 있는 <중간상태>(the intermediate state)에 대한 하임의 견해는 약간의 주의를 필요로 한다. 하임은 루터신학의 전통에 서서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구원을 강하게 부정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에 중간상태에서의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베드로전서 3:18~20과 4:6을 해석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 후 영혼으로 지옥에 가서 회개하는 영혼들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그 이후에도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고 본다. 아마도 이 지점에서 독자들은 카를 하임의 성경적 세계상과 개혁주의의 기독교세계관의 거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칼빈은 『기독교강요』(1536년판)에서 사도신경을 주해하면서 베드로전서 3장19절을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이 이미 죽은 모든 영혼에 선포되었다는 사실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그에게 이 본문 말씀을 '지옥에서의 구원의 가능성'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춘다"는 종교개혁의 원리에 어긋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최태연 백석대 기독교철학 교수이며 한기독교회 목사이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운영위원 및 이사로 활동했으며 현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이며 세계관운동 교육과정개발위원장과 CUP 출판위원, 한국기독교철학협회 이론분과위원장, 한국기독교철학회 연구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올림픽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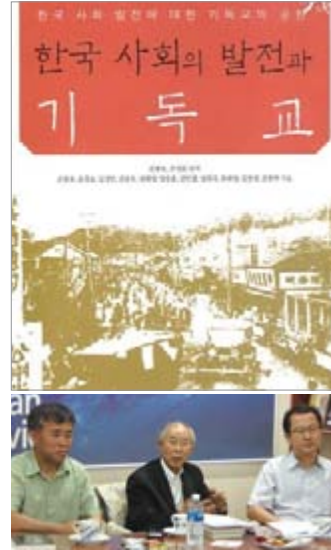
미국, 호주, 아일랜드 출신 건달 셋이 런던에서 만나, 마침 거기서 치러지는 올림픽 경기를 구경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입장권을 살만한 돈이 없었다. 여러 가지 궁리 끝에 생각해 낸 것이 자신들을 선수로 가장해서 경기장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마침 경기장 공사가 급히 이뤄져서 근방에 건축공사 현장이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미국 건달은 거기서 쓰다 남은 기다란 장대(pole) 하나를 발견하여 그것을 들고는 수위에게 “장대높이뛰기(pole-vaulting)” 선수라 고 주장하면서 경기장에 들어갔다. 호주 건달은 버려진 망치(hammer) 하나를 들고는 “해머던지기(hammer throw)” 선수라고 선언하고 입장했다.

혼자 남은 아일랜드 건달은 들고 갈 것이 없어서 고민하다 마침 쓰다 남은 철조망 뭉치를 하나 발견했다. 그것을 들고는 수위에게 다가가서 자기는 “펜싱(fencing)” 선수라고 우겼다. 그러나 그만 퇴짜를 맞고 말았다. 경기장의 “올타리 치기(fencing)”는 이미 완공되었기 때문이다. ☺



WORLDVIEW NEWS



‘한국사회의 발전과 기독교’ 발간 기념 기자간담회

지난 7월 27일(금)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사무실에서 ‘한국사회의 발전과 기독교’, ‘창조와 진화’, ‘헌신과 광기’ 발간 기념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사회의 발전과 기독교’(예영)의 공동편집자 손봉호 교수와 조성표 교수, ‘창조와 진화’(SFC), ‘헌신과 광기’(예영)의 저자 양승훈 교수의 설명을 통해 위 도서들의 발간동기와 의도, 그리고 기대하는 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약 20여명의 기자들이 참석하였고, 심도 있는 질문과 풍성한 답변이 오고 갔습니다.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바랍니다.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7기 수료식

지난 8월 4일(토) 오후 1시 중앙대학교 법학관 703호에서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기초과정과 더불어 심화과정 1기를 새롭게 개설하여 기초과정을 수료한 졸업생들이 세계관과 미디어 제작에 관하여 보다 심도 깊은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매년 봄, 가을 학기에 모집하는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를 통하여 1인 미디어시대를 준비하는 귀한 동역자들이 많이 양성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독교학문연구회 분과발표자 모집

기독교학문연구회에서는 오는 11월에 개최되는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하실 발표자들을 모집합니다.

- 일시 : 11월 10일(토) 오전 10:00-18:00
- 발표/토론 신청 마감 : 9월 10일(월)
- 대학원생 논문 발표 신청 마감 : 9월 10일(월)
- 발표원고 마감 : 2012년 10월 20일 (토)

* 홈페이지의 신청양식으로 제출요망.
* 발표논문 중 선정하여 우수논문시상.
* 제출처 : gihakyun@daum.net, info@worldview.or.kr

- 문의 : 02-3272-4967



강남교회 기독교세계관학교 제6기 수강생 모집안내

다원화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직면하는 여러 현안들에 대해 성경적 관점을 개발하여 직업과 학문 등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나라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강남교회 기독교세계관학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강의기간 : 9월 4일(화) ~ 11월 13일(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9시 50분 (강의 120분, 소그룹 나눔 30분)
- 장소 : 강남교회 소예배실
- 등록방법 : 인터넷신청 후 입금 (강남교회 홈페이지, <http://www.knpc.or.kr>) 또는 지원서 강남교회 사무실제출 후 입금
- 모집인원 : 80명 (입금 선착순 등록마감)
- 대상 : 기독교세계관에 관심 있는 모든 분
- 회비 : 5만원(강의안 및 간식 제공)
- 입금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26-966816 (예금주: 강남교회 세계관학교)
- 문의 : 02-814-7606 김정일목사 (내선 125번), 이상현목사 (내선 701번)
- 주최 : 강남교회 기독교세계관학교

컴퍼스 독자후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는 이원론적 세계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과 성경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야 함을 상기시켜 준 것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과학이나 수학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은 결코 중립이 아니며 기독교 세계관에 중립은 없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또 기독교 대안학교가 기독교 세계관을 위해 교회가 강력한 사명 의식을 갖고 실천하고 있다는 보고를 통해 개인적으로나 교회학교 교사로서 사명감을 고취하는 시간도 되었던 듯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을 전파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애쓰시는 월드뷰에 감사드립니다.

-김선경-

정병오가 말하는
학생들과 소통하기~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은 너를 응원해!

삶의 성장통을 겪는 십대들에게
눈에 보이는 '뻘한 정답' 대신 '정직한 해답'을 주는
선생님의 속 깊은 편지

정병오 지음 | 256면 | 14,000원

대천덕 신부의 통일을 위한 코이노니아

T. 333-5161 <http://www.hsbooks.com>

“우리는 오랫동안 통일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일이 그저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만 생각하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습니다.”

대천덕 지음 | 벤 토레이 엮음
A5변형 | 348면 | 양장 | 16,000원

2012년 8월 10주기를 맞아 대천덕 신부님의 글을 다시 읽는다.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의와 영성을 외치는
파수꾼이었던 신부님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았던 사명은 '한반도의 통일'이었다고 한다. 생전에 쓰신 글 가운데 통일과 관련된 글을
아들 벤 토레이 신부가 모아 엮은 이 책은 통일을 위한 영적인 전제조건부터 개혁과 현대화의 문제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룬다.

Spring Up!
For the Best!
미래로 도약하는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Global Mission Hospital of Cherishing Life through Excellence in Integrative Medicine & Holistic Healing

탁월한 통합의료와 전인치유로 생명사랑을 실현하는 글로벌 선교 병원

- 암에 대한 '통합치료' 시스템을 구축한 통합의학암센터
- 보건산업진흥원 선정 인공관절수술 부문 우수기술 보유 의료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혈액투석 적절성 평가 '최우수 등급' 병원
- 대한심장학회 심혈관중재시술 인증 의료기관
- 보건복지부 선정 외국인환자유치 종합병원 부문 1위 병원

안양샘병원 031 467 9114 | 샘여성병원 031 467 1000 | 샘한방병원 031 463 4310 | G샘병원 031 457 9114

통합의학암센터 031 467 9188 / 9388 | 관절전문센터 031 467 9167 | 뇌척추센터 031 467 9285 | 치과센터 031 463 4383
샘건강의학센터 031 463 4331~2 | 샘산업의학센터 031 463 4390~2 | 응급센터 031 467 9119 / 9129 | 산후조리원 031 467 1190
산전관리실 031 467 1020~1 | 만안구노인보건센터 031 466 6370 | 샘병원교회 031 467 9335 | 장례식장 031 467 9700 / 9770

살아 있는 책으로 공부하라

소중한 우리의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하고 싶은 분들에게
살아 있는 교육의 세계로 안내할 명저 『살롯 메이슨의 살아 있는 교육』

언제부터인가 신뢰할 수 없게 된 공교육, 학교, 교사, 학생. 어디서 어떻게 어긋나기 시작했는가?
내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이제는 나와 내 자녀부터 변화할 때이다. 『살롯 메이슨의 살아 있는 교육』과 함께 바르고 온전하게 교육하는 것, 그것이 작은 변화의 출발점이자 진정한 교육의 완성이 될 것이다.

살롯 메이슨의 교육 철학은 19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개개인의 특성에 대한 배려와 존중, 기독교 세계관으로 보는 진리에 대한 믿음, 삶과 교육의 통합 등 그 의 사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적용될 수 있는 소중한 자녀교육 방법이다. 역사, 문학, 음악과 같은 다양한 과목들을 좋아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즐거움을 알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고 있다. 아이들은 다양한 과목과 관계를 맺으면서 성품을 발달시키며, 배움이란 커다란 이야기 속의 작은 그림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제 우리가 살롯 메이슨의 도움을 받는 일만 남았다.



▶ 추천의 글

공부가 재미있고 교육도 즐겁다니,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살롯 메이슨의 책들이 읽혀지는 곳마다 사랑과 진리를 깨닫는 재미와 즐거움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훗날 세상의 구석구석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날들을 꿈꾸어봅니다.

—살롯 메이슨의 한국지부 대표

교사들은 살롯 메이슨의 아동심리학에 대한 깊은 통찰과 그녀가 주창한 성품훈련과 정신훈련을 위한 새로운 원칙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 그녀의 가르침으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감사와 기억 속에서 그녀의 사상은 살아 있을 것이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살롯 메이슨의 살아 있는 교육』(전6권)



살롯 메이슨 교육에 대해 알고싶은 분에게 권합니다



살롯 메이슨과 함께하는 교육
카렌 안드레올라 지음 | 임종원 옮김



살아 있는 책으로 공부하라
캐서린 레비슨 지음 | 임신희 옮김



살롯 메이슨 교육법
캐서린 레비슨 지음 | 임신희 옮김